

특집 복수로서 연구자와 방법론, 현장을 재탐구하기

지리학계에 보내는 편지

지리학과를 떠난 두 여성 연구자의 이야기*

A Letter for Academia of Geography:
Stories of Two Women Graduate Students
Who Left the Department of Geography

정희성**, 조규혜***

본 연구는 같은 지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두 여성 연구자의 경험을 데이터로 이성
애규범적이고 남성중심적으로 구축된 지리학계의 젠더화된 규율권력을 협력 자문화기술
지(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두 저자는 강의실, 연구실, 학
회장, 뒤풀이 장소 등 지리학과와 일상적 공간에서 겪은 경험을 분석하며 지리학계가 여성
연구자를 훈육하고 규율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지리학계가 어떤 지식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식으로 승인하고 관리하는지를 탐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학계
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는 논의의 계보와 여성 대학원생의 위치성에 대한 논의를 살피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타진한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으로서의 협력 자문화기술지에 대해 자
세하게 논의하며 지식의 객관성과 과학적 엄정성에 대해 질문한다. 본문에서 두 저자의 경
험은 병렬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여성 연구자의 경험을 분석하는 데 대해 차이를 소거
한 채 단일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논문에서는 다소
생경할 수 있는 에필로그를 도입하여, 두 저자의 경험을 병렬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력 자문화기술지에서 협력의 의미를 성찰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찰과 연대의 가능
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논문을 구성하였다.

주요어: 여성 연구자, 젠더화된 미시 정치, 감정문화, 규율권력, 협력 자문화기술지, 연결망, 연구실,
유리벽

* 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루인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루인은 협력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의 과정에서 두 저자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함께 분석해주었다.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hoyjhs@gmail.com).

***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forestree@karts.ac.kr).

1. 서론

이 논문의 두 저자는 같은 연구실에서 지리학 석사과정을 마친 동료였다. 두 저자는 현재 지리학과⁴⁾를 떠나 각기 다른 학과에서 각자 연구 및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지리학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더는 지리학과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한때 지리학자로서 세상에 관한 탐구를 열망했던 우리는 왜 지리학을 떠나야겠다고 판단했을까? 본 논문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며 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지리학을 떠났던 이유를 질문하고 그것을 글로 써보자는 것은 지리학을 떠난 이후였던 지난 2019년, 《공간과 사회》 6월 특집호 “여성주의적 공간론: 비판지리의 역동과 확장”(이하 《공간과 사회》 여성주의 특집호) 원고 모집 글에서 시작됐다. 페미니즘 기반 공간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이기는 했지만(김현철, 2015; 루인·정희성, 2018; 이현재, 2010; 정현주, 2012) 지리학 학술지에서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특집호를 발행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이 몇몇 연구자 개인의 관심을 넘어 한국 지리학계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리학을 공부하는 여성 대학원생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여성 연구자로서 지리학과 안에서 지속적인 불편함과 부대낌을 느껴왔던 우리는 지리학계 내 여성/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위치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리학계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4) 본 논문에서는 ‘지리학과’, ‘지리학계’, 그리고 ‘지리학’이라는 용어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됐다. ‘지리학과’는 두 저자의 경험이 구성된 물질적 연결망으로 경험의 배경이자 맥락이라는 구체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지리학계’란 단순히 복수의 지리학과와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 지식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이라는 용어는 공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학문적 세계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리학과’와 ‘지리학’을 구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지리학을 떠난 두 여성 연구자라는 제목은 저자들이 학문으로서 지리학을 포기하거나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의 증가와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가 곧바로 여성/페미니스트 연구자의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으로 이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위치성 자체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저자는 지리학과 안에 있을 당시, 여성 대학원생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여성 연구자로서 언어화하지 못했던 불편함과 부대낌을 느꼈고, 그 불편함의 감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올 것을 결정하였다. 일상 속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던/됐던 감정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지리학과 안에서 불편함과 부대낌을 느끼는 여성 연구자가 우리 둘뿐이었을까? 우리만 유별나게 불편함과 부대낌을 느껴서 지리학과를 떠나올 것을 결정한 것이었을까?

2019년 《공간과 사회》 여성주의 특집호에 투고한 우리의 글은 ‘계재 보류’라는 예외적인 판정⁵⁾을 받았다. 당시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저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예외적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우리의 글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리학계 내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여성 연구자들의 모임이 꾸러졌고, 약 일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여성 연구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⁶⁾

많은 여성 연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두 저자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이 글에서 기술한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은 두 저자의 것일지라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험의 맥락과 문제의식은 많은 여성 연구자들이 이미 일상에서 겪었으며 또한

5) 《공간과 사회》 논문 심사 규정에는 계재 보류라는 판정이 없다.

6) 이 모임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8년 12월 동아시아비판지리학대회에서 여성주의 지리학 모임이 만들어졌고, 당시 그 모임을 주도했던 김현철, 정현주가 객원편집인으로 이듬해 《공간과 사회》 여성주의적 공간론을 기획했다. 이후 지리학계 내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한 고민과 페미니즘 공간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연구자들이 모여 모임이 꾸러지고 지속되어 오고 있다.

겪고 있는 것들일 가능성의 선상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리학과에서 겪은 일상적 경험과 감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리학과 내 규범적 젠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탐문하고자 한다. 거대한 하나의 ‘일탈적 사건’이 아닌 연구실, 강의실, 학술대회장과 같이 지리학과 안팎의 일상적 공간에서 ‘문화’이자 ‘규범’으로 작동하는 젠더화된 권력이 어떻게 여성 연구자를 훈육하고 고립시키는지 우리의 경험을 데이터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험을 분석할 때는 경험이 위치한 맥락과 구조를 탈각한 채 경험 자체에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경험이 분석의 데이터로 사용될 때는 그 경험이 어떤 맥락과 구조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논문의 핵심은 개인의 경험을 재해석하며 데이터로서 경험을 정치적 해석의 장에 위치 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에 집중함을 의미한다.⁷⁾ 즉,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 개인을 선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되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무엇’은 개인과 무관하게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무엇’은 개인과 동떨어진 실체로서 구조가 아닌, 지리학과라는 물질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agent)들의 수행(performance)들이다. 지문화기술지 방법론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데이터로 분석한 일은 저자인 우리 또한 지리학과와 연결망을 구성해가는 행위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에 대한 분석은 해당 개인이나 특정 학과를 예외적인 것으로 두지 않는다. 제목에서처럼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특정 ‘지리학과’가 아닌 ‘지리학계’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경험의 구체적 연결망을 드러내는 학계 공간에 집중하였다. 지리학과와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

7) “누가 문제였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말은 2018년 5월 한 특강에서 이 주제를 고민하던 최성에게 권김현영이 해준 조언이다. 또한 권김현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2018년 2학기 ‘성과 폭력의 젠더정치’ 수업에서 연구실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규혜가 작성한 에세이에 피드백을 주면서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참고하는 『열정과 망상』을 추천해 주었다.

실, 학회장, 뒤풀이 장소 등의 물리적 공간들은 다양한 행위주체자들이 맺는 다공질적(porous)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이다. 동시에, 지리학과의 연결망의 행위자로서 물리적 공간들은 지리학과의 또 다른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발현되는 장소이기도 하다(조규혜, 2017: 17). 우리의 경험은 지리학이라는 학문을 공유하는 지리학과라는 물질적 관계의 연결망 속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분석은 지리학과 연결망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지리학계가 누구를 가치 있는 연구자로 승인하고 어떤 주제를 지리학의 적절한 지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리하여 지리학계 안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선행연구에서는 지리학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계보와 여성 대학원생의 위치성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본 논문이 어떤 논의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장 방법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협력 자문화기술지의 의미와 유용성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왜 협력 자문화기술지를 채택했는지를 기술하며 연구 방법이 연구 태도로서 협력 자문화기술지를 설명한다. 본론에 해당하는 4장과 5장에서는 두 저자의 개인적 경험과 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두 저자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연구자의 글을 하나로 합쳐 마치 한 사람의 글인 것처럼 논문을 구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위치한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두 저자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우리의 글을 병렬적으로 위치시켰다. 6장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두 저자가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느낀 분열적 감정과 이를 통한 성찰의 가능성을 논의하며 글을 마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논문 구성에서는 생경할 수 있는 에필로그를 구성하였다. 에필로그에서는 본 논문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두 저자가 겪은 두려움과 죄책감 등 감정의 분열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자문화기술지에서 협력의 의미를 고민하며 성찰과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 선행연구: 지리학계 내 젠더화된 권력과 여성 대학원생의 위치성

본 연구는 지리학과에서 두 저자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지리학계 내 젠더화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리학계 내 젠더 권력을 비판하는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로즈, 2011: 32). 초기 논의들은 지리학 연구에 내재된 남성중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Monk and Hanson, 1982; McDowell, 1990; Rose, 1993). 이후 여성 지리학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인종·계급·국적·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범주의 교차 속에서 학계 내 젠더화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했다(Akinleye, 2006; Datta, 2019; Kobayashi, 2006; Liu, 2006; Mahtani, 2006; Sanders, 2006; Sioh, 2006). 지리학계 내 젠더 권력을 비판하려는 연구의 계보는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문제 제기가 단순히 두 저자만의 사적이고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즘 지리학의 오랜 논의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음을 드러낸다.

지리학 연구의 성차별성에 대한 비판의 토대를 마련한 몽크와 헨슨(Janice Monk and Susan Hanson)은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리학 연구의 성차별적 편견의 요소를 분석했다(Monk and Hanson, 1982). 이들은 지리학 연구의 전통이 무엇을 변수로 채택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고민 없이 전통적 성 역할에 매몰되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물성적 이론(gender-blind theory)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험을 평가절하해 왔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몽크와 헨슨은 지리학자 개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리학 연구 전통에 배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체계를 따르기만 한다면 지리학의 성차별적 남성중심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몽크와 헨슨이 지리학 연구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했다면, 질리언 로즈(Gillian Rose)는 지리학 지식의 남성중심성과 여성 연구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연결하여 설명한다(로즈, 2011). 로즈는 “여성의 문제로 여겨지는 주제

를 지식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을 지식생산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지리학의 인식론적 사유 그 자체”(2011: 36)를 비판한다. 로즈는 시간지리학, 인본주의 지리학, 문화지리학 등 지리학의 주요 사조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꼼꼼하게 비판하며 남성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온 지리학 지식 생산 체계를 비판한다. 로즈 스스로가 자신의 저서를 “이 책은 젠더의 지리학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지리학의 젠더에 관한 책이다”(2011: 37)라고 말했다. 로즈의 논의는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는 지리학적 지식과 관점이 학계 내 젠더 권력의 재생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정확하게 포착해 낸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이 지리학 지식의 남성중심성에 집중한다면,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은 지리학계 안에서 여성연구자를 배제하고 종속적 위치로 내모는 젠더권력의 구체적 메커니즘에 집중한다(McDowell, 1990). 맥도웰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나 비아냥거림 혹은 성차별적 농담과 같은 언어적, 음성적, 시각적 권력, 강간이나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남성중심적 지식의 구성과 학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위치, 학계 내 젠더화된 노동 분화라는 네 가지 층위가 중첩하며 학계 내 젠더 권력이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맥도웰은 학계 내 젠더 권력은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서로 맞물리며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린다 맥도웰은 이러한 젠더 권력의 구성에 대해 지리학계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로만 여기고 개인의 일상적 실천은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을 비판한다(McDowell, 1990: 34). 학계 내 성차별적 권력이 구조적 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행위와 실천을 통해 작동한다는 맥도웰의 통찰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공명한다. 구조란 개인과 무관한 불가항력이 아니라 개인들의 구체적 수행과 실천을 통해 구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하는 것이다. 지리학계의 성차별적 젠더 권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이라는 학문과 지식의 남성중심적 구성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지리학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와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가 자문화기술지라

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 경험의 맥락들을 살피고자 하는 이유이다.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리학계 내 성차별적 문화를 비판한 연구는 비(非)백인 여성(women of color) 지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2006년 페미니스트 지리학 저널 《Gender, Place and Culture》는 젠더와 인종의 교차 속에서 작동하는 학계 내 젠더화된 권력과 훈육을 논의한 특집호를 발간하였다(Akinleye, 2006; Kobayashi, 2006; Liu, 2006; Mahtani, 2006; Sanders, 2006; Sioh, 2006). 특집호 저자들을 대표하는 마타니(Minelle Mahtani)는 학계를 비백인 여성 지리학자들의 투쟁의 장으로 재규정한다(Mahtani, 2006). 피부색도 민족적 배경도 학계 내 위치도 각기 다른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위치한 저자들은 비백인 여성 지리학자로서 학계 안에서 겪은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기술하며 지리학계 내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비백인 여성 지리학자들의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학계 내에 존재하는 젠더화된 권력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간과 사회》 여성주의 특집호의 객원편집위원을 맡은 김현철이 2019년 공간환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왜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이토록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가?”(김현철, 2019: 23)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관련 논의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 김현철은 지리학계 내 여성주의 담론을 논의할 공론장의 부재와 학계에서 소외되고 비가시화되는 비체들의 우울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철의 논의가 한국 지리학계의 규율적 규범과 권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본 연구는 지리학과에서 공부한 두 여성 연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리학계의 젠더화된 규율과 권력의 미시정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두 여성 연구자의 경험을 데이터로 사용하는 배경에는 ‘석사과정생’과 ‘여성 연구자’라는 위치성이 자리한다. 국내 대학원생의 위치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생이자 노동자라는 계급에 기반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강태경, 2018; 김민섭, 2018; 염동규, 2017).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원생이 조교 활동이나 연구 노동 등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

채로 노동착취나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들의 논의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대학원생이 겪는 차별적 경험들을 개인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위치 지으며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다.

대학원생들이 겪는 차별적/억압적 경험들은 노동자의 위치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특히 여성 대학원생의 경우, 남성 대학원생과는 다른 방식의 차별적/억압적 맥락에 위치하게 된다. 여성 대학원생이 겪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논의로는 취업 시 여성 대학원생들이 겪는 성차별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논의(민무숙, 2002; 장미혜, 2001), 기혼 여성 대학원생의 학업-육아 등 다중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김은하 외, 2008; 서정원, 2015), 이공계열이나 체육계열과 같이 남성이 주를 이루는 학문 분야에서 여성 대학원생이 겪는 억압을 다룬 논의(김우석, 2015; 전지은, 2012) 등이 있다. 여성 대학원생의 위치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학계 내 성폭행/성희롱에 대한 고발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여성 연구자들이 학계에서 경험하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박현선 외, 2018; 부산대 미투운동의 당사자와 연대자들, 2018; 임지연 외, 2019; 유현미, 2018).

이러한 국내외 논의 계보의 지평 속에서 두 저자는 학계 내 젠더 규율권력의 미시적 작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 대학원생의 위치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계의 규율적 규범과 권력은 학칙이나 계약과 같은 법권력의 형태로 혹은 뚜렷한 차별이나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학계의 규율적 규범과 권력은 학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연결망 속에서 농담이나 걱정과 같은 일상적 수행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의 규율권력을 미시적 차원의 권력이라 칭한다. 그리고 지리학계 안의 미시적 권력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는 협력 자문화기술지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젠더화된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경험뿐 아니라 감정도 집중하고자 한다. 학계의 감정문화를 연구한 샤를로테 블로크(Charlotte Bloch)는 학계를 마치 감정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만

드는 감정의 관리 전략과 감정 정치에 주목한다(블록, 2019). 가령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특정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하면서 전략적으로 친근하게 대하는”(블록, 2019: 91) ‘친하기 정치’나 스스로를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속이기 게임’(2019: 94), 자부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복화술’(2019: 118)과 같은 감정 관리 전략을 설명한다. 특히 9장 「감정의 미시정치와 젠더」에서는 “감정의 미시정치와 젠더 간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위계와 젠더 불평등 재생산 과정”(2019: 254)에 집중한다. 블록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방식의 감정 관리가 요구되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사회적 입지가 할당되는 데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화’라는 감정에 대해 “남성은 화를 냄으로써 입지를 얻지만 여성은 어떠한 전략으로 화를 다루든 입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2019: 288)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감정의 미시정치는 학계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시적 메커니즘의 결과이자 그것을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의 논의는 연구실 안에서 우리가 느낀 고립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감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인터뷰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논의를 전개한 블록과 달리 본 연구는 두 명의 연구자 스스로의 경험을 교차적으로 분석하는 협력 자문화기술지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다. 주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블록과 달리 학계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한 대학원생의 학계 내 경험을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인터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학원생이 겪는 부당함을 공론화하기 위해 〈슬픈 대학원생의 초상〉이라는 웹툰을 기획했던 염동규가 지적하듯, 좁은 학문 세계 안에서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염동규, 2017). 그렇기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계 내의 부당함에 대해 “폭로하고 싸우느니 그만두기를 선택”(염동규, 2017: 153)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경험적 데이터가 수집되기 어려워 분석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협력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채택한 것은 단지 인터뷰가 어렵기 때문은 아니다. 연구자 본인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교차

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인터뷰를 하는 방식과 다르다. 인터뷰의 경우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분리되는 반면, 협력 자문화기술지의 경우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본 연구에서 협력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채택한 구체적 이유와 그 효과를 다음 장인 방법론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연구자의 경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떠한 분석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탐문하고자 한다.

3. 방법론⁸⁾: 자문화기술지의 분석적 의미와 효과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의 한 갈래인 협력 자문화기술지(collaborative autoethnography)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자신의 삶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질적연구 방법이다(Chang, Ngunjiri, and Hernandez, 2013: 18). 협력 자문화기술지는 한 명의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복수 연구자의 경험을 함께 교차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연구 방법이다. 협력 자문화기술지는 단순히 '복수'의 연구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연구자가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을 강조하는 연구 방법이다. 여기서는 방법론으로서 협력 자문화기술지가 가지는 의미와 분석적 효과를 탐문하고, 본 연구에서 협력 자문화기술지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8) 이 장에서는 연구 방법(method)가 아닌 방법론(methodology)로서 자문화기술지를 다루고자 한다. 하딩은 근거를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기술(technique)로 연구 방법을 정의하는 반면, 방법론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론으로 단순히 연구의 기술적인 것을 넘어 연구의 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King, 1994에서 재인용)

1) 자문화기술지, 객관성에 대한 재사유의 실천

자문화기술지는 1970년대 방법론과 연구 방법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비판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Adams, Holman Jones and Ellis, 2015; Crawley, 2012). 연구의 객관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자 혹은 연구가 가능한가를 질문하며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이 연구 과정과 결과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다(Chang, Ngunjiri and Hernandez, 2013).

연구자의 중립적인 위치와 객관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인간의 주체성과 연관된다. 푸코에 따르면 인간의 주체성은 고고하게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다(신동일, 2018). 연구자 개인도 객관성을 담보하는 투명한 존재가 아닌 특정한 담론 질서 안의 존재로,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훈육되고 통치되어 가는 존재이며 담론의 질서를 체화하며 담론을 실천하고 재생산하는 존재이다. 본 연구는 여성 연구자인 두 저자가 지리학계 내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즉,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될 수 없는 연구 주제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될 수 없는 본 연구가 채택한 협력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의 신화에 도전하며, 오히려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개인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그 경험이 구성될 수 있었던 특정한 담론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과학적 지식을 둘러싼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 믿음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그것에 대항하여 주관성을 사유해 왔다. 페미니스트 과학자 샌드라 하딩(Sandra S. Harding)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기 위해 ‘강한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하딩, 2009). 흔히 지식은 그 어떤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

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가정되어 왔으나, 하딩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특정한 입장을 반영하는 편파성 혹은 당파성(partiality)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은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처라는 설명은 생계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하는 여성이나 가정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설명이 아닐 수 있다. 집이 따뜻한 휴식처라는 해석은 가사노동을 하지 않으며, 가정 폭력을 겪지 않은 특정한 사람의 입장만을 반영한 서술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딩은 다양하고/복잡한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강한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특정 지식이나 해석이 위치하는 사회적 맥락, 다시 말해 지식을 생산하는 자의 위치 그리고 특정 지식이 전제하는 입장과 권력을 함께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딩의 ‘강한 객관성’ 개념에서 유의할 것은 ‘강한’이란 수식어 전통적인 연구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객관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연구자의 윤리와 태도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하딩은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객관성이 특정한 입장을 자연화하고 규범화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강한 객관성’ 개념을 제시했다.

경험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사회문화적 수행이 현현하는 연결망 속에 위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두 저자의 경험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 구조로서의 추상적 지리학계가 아닌, 행위자들의 수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결망으로서 지리학계 내 여성 연구자들의 위치성을 분석하는 협력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2) 자문화기술지,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감정을 분석하는 틀

본 연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감정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적극 사용한다. 지리학과를 떠나오기 전 우리는 학계 안에서 혼란, 자책, 분노, 열등감, 패배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감정의 사회적 구성을 연구한 에바 일루즈(Eva Illouz)에 따르면 감정은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문화 의미들과 사회관계들”(일루즈, 2010: 16)이다.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학계 안의 감정 정치를 분석한 블로크는 학계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며 학계 내의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포섭과 배제의 정치를 드러낸다(블로크, 2019). 블로크는 특히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허용된 감정 관리 방식은 입지 상실, 다시 말해 가시성, 인정, 상호작용 권리의 상실을 낳는다”(2019: 297)며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는 감정 관리 방식이 학계 내 젠더화된 규율권력을 재생산하는 패턴을 설명한다. 이러한 블로크의 분석은 학계에서 겪는 감정을 사회문화적 분석의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것은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학계 내 젠더화된 규율권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계 내 젠더 권력은 성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학계 내 미시적 차원의 젠더화된 규율권력은 개인의 일상적 수행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작동 방식을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다. 감정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감정이 구성되는 구체적인 관계의 연결망을 분석할 수 있고, 비가시화된 학계 내 젠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지리학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의 연결망 속에 위치한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분석하여 지리학계의 미시적 젠더 권력의 작동을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몇몇 이들에게 연구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여를 꺼렸다. 우리는 그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계라는 좁은 관계의 연결망 속에서 누군기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두려움은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대응에서부터 뒷담화나 따돌림과 같은 일상적 차원의 보복 가능성까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이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학계 안에서 작동하는 미시적 젠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포착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 연루되어 있는 개인들이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해오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경험과 감정이 위치한 관계의 연결망과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뷰라는 연구 참여 방식을 통해 아직 연구자로 호명되기도 어려운 석사과정생이나 학부생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연구 대상자들은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모든 단서를 삭제할 경우 관계의 연결망과 맥락의 구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과 감정의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연구 방법은 여전히 지리학계의 연결망 속에 있지만, 지리학과라는 물질적 장에서는 조금 떨어진 우리의 경험을 분석하는 협력 자문화기술지였다.

3) 자문화기술지, ‘규혜/희성’과 ‘나, 우리, 그녀’

본 연구는 협력 자문화기술지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여 두 저자의 개인 경험을 함께 해석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협력적 작업을 통해 지리학계 내 여성 연구자들의 위치성에 대한 논의를 형성해 가고자 한다(Chang, Ngunjiri and Hernandez, 2013: 1). 두 저자의 사건들(stories)은 개인적인 스케일의 경험이 아니라, 두 저자가 속해 있던 시공간과 사람들, 공간의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와 네트워크의 물질적 조건들이 직조되어 연결망이 드러나는 다중적 순간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연구자의 글을 하나로 합쳐 마치 한 사람의 글인 것처럼 이 논문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 대신 ‘희성의 이야기’와 ‘규혜의 이야기’라는 소제목으로 각자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장과 입장을 최대한 자세

하게 담는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공저로 저술되는 연구는 마치 한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논문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에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입장을 삭제하며 하나의 단일한 결과로 요약하는 방법 대신, 각자의 서로 다른 위치를 드러내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논의 자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규혜’와 ‘희성’이라는 두 저자의 이름을 통해 두 저자가 위치한 특수한 맥락과 입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논문을 구성한 까닭은 사회적 인 것을 단일하게 사유할 수 없다는 입장(Jackson, 2003)과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인식론적 폭력(루인, 2013)이라는 입장에 동의하는 까닭에서다.

또한, 각자의 글에서 두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와 ‘우리’라는 1인칭 시점의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함과 동시에, 종종 ‘그녀’라는 3인칭 대명사로 상대방을 호명한다. 나, 우리, 그녀라는 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규혜, 희성이라는 두 저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만든다. 규혜, 희성이라는 두 저자의 이름은 두 저자의 특수한 위치성을 강조한다. 반면 나, 우리, 그녀라는 인칭 대명사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대명사의 위치로 가져갈 수 있는 틈을 제공한다. 우리의 인칭 대명사 사용 배경과 유사하게,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퍼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거리를 두는 객관적인 용어”(콜린스, 2009: 14)인 ‘그들’, ‘필자’, ‘연구자’라는 주어 대신에 ‘나’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콜린스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거리 두기를 문제 삼고 주관성과 객관성의 경계에 의문을 던진다.

‘필자’와 같은 객관성을 표방하는 표현이 아닌 ‘나/우리’라는 주관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주어의 사용은 독자에게 개인의 경험을 맥락 속에 위치지어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콜린스가 ‘나/우리’라는 표현을 채택한 이유 중에는 콜린스 자신이 “내부의 외부인(outsider-within)”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콜린스, 2009: 38). 백인 남성 중심의 학제에서 교수로 임용된 흑인 여성 콜린스는 학제 내부에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학

제의 외부인이자 주변인이었다. 콜린스는 자신의 위치에서 흑인 여성의 지식이 어떻게 학제에서 배제되는지를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다양한 학제에서 지식이 생산되고 평가되고 승인되는 일련의 지식 구성 과정을 분석하게 했다(콜린스, 2009: 418~420). 내부의 외부인이라는 위치는 자문화기술지가 “내부자의 관점과 외부자의 관점 사이,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제약 사이의 긴장”(Adams, Holman Jones and Ellis, 2015에서 재인용)을 직면하고 적극 사유하는 작업이라는 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경계를 감각하게 하는 전략으로 ‘나/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한다.

자문화기술지의 핵심은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자와 독자가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Adams and Holman Jones, 2011: 110~111). 자문화기술지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기(self)와 사회, 문화 간의 연계를 관찰하고 성찰의 과정을 겪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60)이라 설명하는 것처럼, 성찰은 자문화기술지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개인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연구자의 성찰은 동시대의 연결망 속에 존재하는 독자의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서전과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Chang, Ngunjiri and Hernandez, 2013).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의 논문에서 나, 우리, 그녀의 인칭 대명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 또한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름을 통해 두 연구자의 특수한 위치와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칭 대명사를 통해 독자의 자리를 남겨 두는 것은, 모든 여성의 위치가 같다는 견해에 반대하면서도 모든 여성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연결될 수 없고 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협력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론으로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같은 연구실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여성 연구자들 간의 ‘공유’를 경험하였다. 협력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 만남’과 ‘공

유'이다. 개인의 경험 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지문화기술지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이 아닌 실제 경험자로부터 발화되는 경험과 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까닭에, 실제 몸으로 만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우리는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카페나 스튜디오와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 직접 만나 연구를 진행했고, 당시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 간 경험의 '공유'는 개방성에서 비롯한다. 즉,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상대방을 무한한 경쟁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건강한 관계 성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력 지문화기술지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지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연구자들의 위치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연구자들이 스스로의 위치성을 성찰하고 다양한 위치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연구 방법이다.

4) 지문화기술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연구윤리

본 논문은 우리가 지리학계에서 겪은 경험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누가' 잘못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 작업은 한국의 지리학계라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원을 규율하고 훈육하며, 지리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통치하고 있는지를 탐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리학계를 완결된 구조가 아닌 구체적 개인과 다양한 시공간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연결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설정한다. 우리의 경험은 미국지리학대회와 같이 국제적인 규모의 발표회장에서부터 연구실의 개인 공간에까지 다양한 스케일로 지리학계의 공간을 가로지른다. 이러한 공간적 설정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경험을 우리가 소속되었던 특정 지리학과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한국 지리학계로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을 지리학과와의 연결망 속에서 구체적 수행으로 개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지리학과만으로 문제를 국한해 독해할 경우, 본 논문은 자문화기술지가 아닌, 앞서 서술한 개인의 경험을 토로하는 자서전에 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개인의 미시적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적 분석은 곧 ‘누구’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이는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정 지리학과만의 문제라는 식의 관점과 그 지리학과 안에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논점은 미시적 경험의 언어를 통해 분석해 내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해석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에도 반한다.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사유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문을 읽는 독자 또한 연구윤리를 고민해야 함을 본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본 논문에서 등장하는 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색출해 내하고자 하는 태도는 우리의 분석이 목표하는 것을 논의의 궤도로부터 이탈시키는 지식의 작동 방식이다. 경험이 폭로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의 서사만을 환기하는 자서전의 형식이다. 우리는 그 경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젠더 권력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개인의 경험은 가시적 행위자와 비가시적 행위자가 연루된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고, 또다시 연결망을 만들어간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의 과정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며 동시에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즉, 개인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타인의 존재와 함께 혹은 타인의 존재를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는 우리의 경험 역시 온전히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경험이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이 구성될 때 타인의 존재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문화기술지에는 동의를 받지 않은 타인의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윤리에 대한 침해한 고민과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문화기술지의 연구윤리에 대한 학계 내 합의된 논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개별 연구자들이 실천 과정에서의 고민을 분석과 함께 기록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Chang, Ngunjiri and Hernandez, 2013: 1).

우리는 자문화기술지의 이러한 필연적 연구윤리의 문제의식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확정된 연구윤리 지침이 부재하다는 환경 속에서 본 연구의 연구윤리를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직위나 호칭은 삭제하면서도, 경험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드러내야 하는 사회적 위치와 위계는 기술하였다. 또한 우리의 과거 소속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현재 소속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문화기술지가 필연적으로 지닌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자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포함된다. 우리는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어떤 특정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연구윤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객관성의 신화만큼이나 위험한 연구의 신화임을 지적한다.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야 하며, 합의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연구윤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적이며 실천적인 행위가 중요하다.

5) 자문화기술지, 여성 연구자의 단일한 위치성에 대한 거부

본 논문에서 분석되는 우리의 경험은 모든 여성 연구자의 경험을 대변하지 않는다. 모든 여성의 경험과 인식, 이해, 위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당한 차별을 겪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의 경험을 분석하는 여성의 경험이 모든 여성의 경험을 대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여성의 위치성은 복잡-다양하기에, 우리는 여성 연구자를 포함한 여성의 경험을 기존의 담론 속에서 획일화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함과 동시에 기존의 담론을 우리의 언어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4. 희성의 이야기

2017년 12월, 연구실 단독방에서 송년회 이야기가 나왔다. 이상했다. 연구실 사람은 여섯 명인데 단독방에는 다섯 명뿐이었다. 단독방에 없는 사람은 이 논문의 공저자인 규혜였다. 규혜는 당시 다른 학교의 다른 학과에서 공부하겠다고 했고, 나는 당연히 그녀가 원치 않아 송년회에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 생각했다. 얼마 후 규혜를 만날 일이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같이 가지 그랬냐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떠나는 사람에게 인사는 못 해줄망정 등 뒤에서 침을 뱉는구나”라고 말했다. 그녀의 당혹감과 분노는 고스란히 나에게도 전해졌다.

그녀가 지리학과를 떠나려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연구실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지리학과를 떠나 다른 공부를 하려는 것은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 생각했다. 지리학과 사람들이 그녀를 밀어내는 느낌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를 지리학과에서 밀어낸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공부하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때때로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농담처럼 그녀의 뒷말을 하곤 했다. 농담처럼 오가던 그녀의 뒷말을 못 들은 척 외면했던 나 역시 그녀를 지리학과에서 밀어낸 사람 중 하나였다. 아무도 떠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주지 않았다.

나 역시 지리학과 대학원에서 퀴어-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여성 연구자로서 학과 안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규혜가 없는 자리에서 그녀에 대한 뒷말을 했듯,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게 대한 뒷말을 했다. 나에게 대한 뒷말을 직접 듣고도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그래야만 지리학과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다. 웃으며 나와 규혜에 대해 뒷말을 하던 사람들을 외면한 결과는 ‘떠나는 동료의 등 뒤에 침을 뱉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송년회 사건의 전말을 알고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모든 걸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는 없었다. 타인에

대한 뒷말과 평가가 일상적 대화로 오가던 연구실과 대학원의 문화, 그리고 이로 인해 떠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해야 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고 말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면담에서 나는 정리되지 않은 말들로 그동안 침묵해 왔던 것들을 쏟아냈다. 교수는 일견 동의하면서도 일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일부 교수들이 하는 잘못된 언행으로 문제를 축소했다. 그리고 규혜를 송년회에 부르지 않기로 한 것이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교수는 규혜가 불편해할까 봐 그랬다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참담했다. ‘규혜가 불편해할까 봐’라는 말은 그녀가 불편하다는 그들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한 배척을 그녀를 위한 배려로 포장했다.

교수가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나의 기대는 어긋났고, 더 이상 지리학과에 남을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교수에게 연구실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실을 나간다는 말은 지리학과를 떠난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나는 2017년 연구실 송년회에 가는 대신 연구실 자리를 정리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지리학과를 떠나기 전의 그때 그 공간들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여성 연구자로서 내가 들어가고자 애썼던 지리학계로, 지리학과 연구실로, 강의실과 학교로, 학술대회장과 그 뒤풀이 장소로 나는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떠나게 했는지,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오랫동안 나의 소속이라 믿었던 그곳에서 나는 왜 불편함과 부대낌 그리고 불안감을 느꼈는지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 찾아보고자 한다.

내 책상은 있었지만 내 자리는 없었던 곳: 연구실 내 뒷말과 감시의 공간 정치

나와 내 주변의 학과 사람들은 종종 ‘지리학과에는 벽에도 귀가 있어’라는

말을 하곤 했다. 소문과 뒷말이 많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리학과에는 벽에도 귀가 있어’라는 말은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내가 공부한 지리학과는 교수 연구실부터 강의실, 학과 사무실, 세미나실, 대학원생 연구실 등 학과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이 한 건물에 모여 있었다. 더욱이 대학원생들은 연구실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관행이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지리학과 대학원생에게 ‘지리학과에는 벽에도 귀가 있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공간 정치이자, 실제적인 공간 배치의 효과였다.

내가 공부한 대학원은 연구실 체제로 운영되었다. 연구실은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 한 칸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학부 4학년 때 예약입학자 신분으로 연구실에 처음 들어갔다. 처음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책상과 책꽂이, 내 자리가 생긴 것이 좋았다. 다른 대학원생들과 수업은 함께 듣지만 아직은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던 상황에서 연구실에 마련된 내 자리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소속감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구실이라는 공간은 내게 소속감이 아닌 고립감과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다. 내가 쓰는 책상조차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 공간이 나를 밀어내는 느낌은 어느 한순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지 않았다. 약간의 거슬림 정도였던 사소한 불편함들이 누적되어 어느새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졌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대부분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연구실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와는 별개로 연구실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대학원 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했다. 연구실 자리를 자주 비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뒷말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규혜는 외부 수업이나 세미나 등으로 연구실을 자주 비우는 편이었고, 연구실 사람들은 ‘요즘 규혜 얼굴 보기가 힘들네’, ‘규혜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사람들

은 그녀의 근황을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만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정작 그녀가 연구실에 왔을 때 그녀에게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묻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의 남성 동료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너도 규혜 좀 별로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그의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듯 “네?” 라고 되물었다. 그는 멧쩍게 웃으며 아니라고 말하고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연구실에서 타인에 대하여 이토록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경우는 잘 없었다. 하지만 규혜가 연구실 자리를 비울 때면 오가던 그녀에 대한 뒷말은 사소한 일상적 대화처럼 오가곤 했다.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를 환기하는 방식부터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품평 그리고 당황스러울 만큼 노골적인 비난까지 뒷말은 그저 연구실의 일상적 풍경이었다.

뒷말은 비난이나 비아냥거림 같은 형태로 발화되기도 하지만 농담이나 궁금함의 표현, 걱정이나 염려라는 형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발화자가 대상에 대해 부정적 표현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발화자는 걱정이나 염려의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상에 대한 평판을 만들어간다. 연구실에서의 뒷말은 대체로 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뒷말에 찝찝함과 불쾌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따져 묻기는 쉽지 않았다. 뒷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뒷말이 ‘그냥 궁금해서’ 혹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반응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과하게 예민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금하고 걱정돼서’ 한다는 뒷말은 감시와 훈육의 효과를 가져온다. 모두가 뒷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뒷말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 역시 뒷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뒷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뚜렷하게 내보이는 여성에게는 드세고 이기적이라 평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존재하기에 뒷말의 감시와 훈육의 효과는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내게 유일한 여자 선배였던 규혜에 대한 뒷말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스며

들어 나의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규율하게 만들었다. 나는 연구실에서 오가는 다른 여성 동료들에 대한 뒷말들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저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다는 혹은 듣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이어폰을 꽂곤 했다. 그저 아무것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여성 연구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하게 하고 여성들 사이의 연결망을 구축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뒷말이 가진 훈육의 효과이자 연구실 안에서 젠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연구실의 남성 동료들은 그들끼리 친밀한 유대관계와 연결망을 맺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연구실에 가서 몇몇 친한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곤 했다. 친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식사가 식사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은 누가 무슨 요리를 했고, 어떤 반찬이 맛있었는지, 식사 자리에서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그들만의 사적인 대화는 연구실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함께 쓰는 연구실에서 그들만 공감할 수 있고 그들만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커질수록,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연구실은 연구실원 모두의 공간이었지만, 모두가 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공적 공간인 연구실을 자신들의 사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남성 동료들의 뒷말과 사적 대화로 사유화된 연구실 공간 안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를 쓰는 동료가 자신의 파티션 바깥쪽에 책장을 가져다 놓았다. 새로운 책장이 들어선 곳은 그의 책상과 나의 책상 사이였기 때문에 그는 내게 책장이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동료가 조금 좁아진 것은 맞지만 통행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았기에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책장 위로 다른 책장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높게 쌓인 책장들에 가려 내 자리에서는 연구실 입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누군가 연구실에 들어올 때 나는 한 템포씩 늦게

그들을 인지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인사를 할 때가 많아졌다. 그럴 때면 누군가는 ‘어, 너도 있었네?’라는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사람을 보고도 왜 인사를 안 하나며 핀잔을 주는 일도 있었다. 그 짧은 한 템포가 쌓여 어느새 나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입구에 계속 신경을 쏟고 있어야 했다.

나는 옆자리 동료가 내 시야를 가리고 나를 소외시키기 위해 책장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단지 개인적인 공간이 더 필요했던 것뿐 이었고 그래서 나 역시 그에게 책장을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가 쌓아 올린 책장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고 내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율했다. 내게 인사를 빨리 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던 이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옆자리 동료의 책장을 문제 삼지 않았다. 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지만 내 행동의 결과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했다. 책장이 가린 시야만큼 내 공간과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연구실은 그렇게 점점 내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내 공간은 내 자리를 둘러싼 파티션 안쪽으로 좁혀졌다.

연구실이라는 공간이 감시받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한 남성 동료가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책상이며 책장을 들춰보는 것을 목격하면서였다. 그 사람은 마치 자기 자리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서성이며 책을 펼쳐 보기도 했다. 그의 행동이 너무 기이해 보였지만 그가 너무도 거리낌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직접 문제 삼기 어려웠다.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뒤적였고 그의 기이한 행동은 익숙한 행동이 되었다. 익숙해진다고 해서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익숙해진 불편함은 불안감이 되었다. 그가 내 자리를 뒤적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뒤적이는 모습을 본 이후로 연구실이라는 공간은 감시받는 공간처럼 느껴졌고, 나는 내 자리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파티션 안쪽으로 좁혀졌던 내 자리는 그의 기웃거림으로 그마저도 사라졌고, 연구실 자리는 내게 그저 감시의 공간이 되었다.

연구실이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연구실보다 학과

사무실에서 공부하기를 더 선호했다. 당시 학과 사무실은 수석조교와 일반 조교의 자리가 있었고, 일반 조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교 근무와 개인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다. 조교를 하며 학교에 다녔던 나는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날에도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대신 근무하겠다고 하고 학과 사무실에서 공부하곤 했다. 왜 학과 사무실에서 공부하냐는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는 모니터가 더 좋고 자리도 더 넓어서 학과 사무실이 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연구실에서의 답답함과 부대낌을 견디기 힘들어서였다. 연구실을 떠나던 날 면담 자리에서 교수는 다른 남성 동료들이 내가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내게 말했다. 연구실 분위기를 흐린 데에는 연구실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교수에게 왜 내가 연구실에 있기 싫어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반문했다. 그들에게 나의 피해는 나의 책임이자 나의 가해가 되어 있었다.

연구실 자리를 정리하고 며칠 뒤, 사물함에 남은 몇몇 짐을 챙기기 위해 학교에 갔다. 밤늦은 시간이라 연구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깨끗하게 비웠던 내 자리에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짐들이 올라가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아무도 쓰지 않던 자리처럼 보였다. 내가 자리를 정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연구실의 내 자리는 내가 떠난 이후의 빈자리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연구실에서 나의 위치였고, 2년을 넘게 함께 한 동료들이 내게 보여준 작별인사였다.

‘여자애들’: 여성 연구자의 몸과 섹슈얼리티

2017년 4월 나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지리학 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나는 발표장 근처 호스텔에 묵었고, 발표 전날 호스텔에 있는 휴게실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 또래의 미국인 남성이 내가 준비하는 발표에 흥미를 가지며 말을 걸어왔고, 나는 그와 내 발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 발표 스크립트를 보며 영어 표현을 수정해 주었고, 다음날 발표장에도 함께 갔다. 나는 교수에게

그를 소개했고, 교수는 그와 악수를 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내 발표를 들으러 온 규혜는 교수가 크게 화를 냈다며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나는 교수가 왜 화가 났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세션이 끝나고 교수는 바로 세션장을 떠났고 나는 서둘러 교수를 따라 나갔다. 교수는 내게 크게 화를 내며, 잘 알지도 못하는 애 때문에 내 발표가 망했다며 나를 질책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가 망했다는 말에 나는 먼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교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모르는 외국인 남자를 발표장에 데려온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 그는 내게 “위험할 뻔했잖아”라며 어떻게 그런 생각 없는 짓을 할 수 있는지 다그쳤다.

그가 정말로 나의 안전을 걱정해서 화를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교수는 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교수는 정말 나의 안전을 걱정했다면 걱정의 방향이 자신에게 알리지 말라는 방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때 교수가 무엇에 화가 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연구자이자 발표자로서 참석한 학회에서 나는 연구자로 평가받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행실’로만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위해서라고 들어왔는데, 나는 그 누구와도 대화 한 마디조차 해보지 못하고 교수에게 불러 나갔고, 그렇게 해서 들은 말은 내 발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 나는 내 연구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 연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에게 영어 표현이 적절한가를 물었을 뿐인데, 교수는 내게 자세한 상황을 묻지도 않고 나를 위험한 짓을 저지른 ‘생각 없는 여자’로 만들었다.

여성 연구자가 연구자가 아닌 여성으로 치환되는 일은 여성 연구자에 대한 공식적인 배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다른 학교의 교수들이 참가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원생 조교가 필요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규혜를 통해 들었다. 그녀는 다른 이유로 교수와 면담을 하던 중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고, 연구실원 중에 누가

조교로 좋겠냐는 교수의 질문에 나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연구 프로젝트가 접경지대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에서 다루는 경계에 대한 사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교수에게 말했다고 했다. 내게 이런 말들을 전해주면서 그녀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수에게 찾아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뒤에서 ‘여자애들’끼리 ‘속닥속닥’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교수가 조교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조교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연구실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교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조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성 동료가 그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교수는 ‘그런 춥고 위험한 곳에 여자들이 어떻게’ 가냐고 덧붙였다. ‘여자애들’. 스스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말이 교수의 입을 통해 나왔다. 여자들이끼리 뒤에서 속닥속닥한다는 말이 듣기 싫어 거절한 제안이 남성 교수와 남성 학생 사이의 속닥속닥으로 결정되었다. 연구실의 공식적인 절차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사적으로 결정되었고, 그들의 사적인 결정은 아무 문제없이 공적인 결정으로 통보되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지점은 나 혹은 다른 여성 동료가 연구 프로젝트 조교로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나를 포함한 여성 동료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조교가 필요하다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아야 할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조교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의 답사 지역이 춥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남성 제자와 함께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여성 제자를 조교로 택하지 않은 것은 여성을 배려한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특정 연구 과정에서 여성 연구자들을 배제시키는 상황이 ‘춥고 위험한 곳’이라는 말로, ‘여자들이’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물론 답사를 진행하는 연구 과정이

여성에게 특히 더 취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Gluckman, 2018; Steffen, 2017). 그렇다면 고민해야 할 것은 연구 과정에서 여성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위협이나 폭력을 어떻게 사유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이지, 여성 연구자를 연구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교수 개인이 내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리학과에서 공부하는 동안, 답사 과정에서 여성 연구자가 겪을 수 있는 위협과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논의해 본 적은 없었다. 특정 교수가 답사 뒤풀이에서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것은 해당 교수의 답사 수업을 담당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여학생들을 해당 교수 주변에 앉히지 말라는 당부로만 끝났을 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 반면 학부 수업에서는 ‘여학생들 답사 갈 때 하이힐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지 말라’는 말만 농담처럼 자주 하곤 했다. 답사를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리학과에서 답사 과정 중 여성 연구자가 겪을 수 있는 위협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 없이, 여성 연구자가 겪을 수 있는 폭력의 ‘피해’를 여성 연구자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것은 구조적 취약성을 개인적 취약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학과/학계의 분위기는 답사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을 말할 수 없게 만들며, 공동체로서의 학과/학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Steffen, 2017)

‘여자애들’이라는 말이 연구자로서의 어떤 기회들을 차단하는 데에 적절한 근거나 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리학과 내에 여전히 여성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에 대한 구분과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리학과 안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연구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 연구자는 ‘연구자’로 호명되기보다 ‘여성’, ‘여학생’, ‘여자애’로 호명되곤 한다. 학술대회 발표장에서 발표보다 여성으로서의 행실을 문제시하는 발언이나, 특정 기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은 모두 여성 연구자를 여성으로만 호명하며 남성 연구자와 동등한 연구자로 대우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것은 왜 지리학이 아닌가?: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대한 검열

앞서 언급한 보스턴 학회에서 한국인 지리학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모임의 일환으로 뒤편이에 가게 되었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는 같은 학과 교수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 교수는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대뜸 “너 쿼어 뭐 그런 거 한다며? 그런 거 왜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런 거’로 뭉뚱그려진 대명사 안에 구체적인 내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리학 연구와 쿼어 연구를 어떻게 연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없었다. ‘그런 거 왜 하는데?’로 시작된 그의 일방적인 대화는 내 연구 주제와 인문지리학 전반의 가능성 없음으로 이어졌다. 교수는 자신의 말을 ‘염려’와 ‘걱정’으로 포장했지만 내게는 교수의 편견 섞인 협박으로 들렸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교수가 뭘 하려는지 듣고나 말하라며 그를 저지할 때까지 그는 내게 연구와 관련된 무엇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일방적인 대화는 끝이 났다.

그 교수의 그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학과 사무실에서 페미니즘 책을 읽고 있던 내게 왜 그런 책을 읽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 학위논문 중간발표 당일 아침에 마주친 나에게 “너 발표 1초도 넘기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규혜의 학위논문 중간발표 자리에서도 그녀의 연구 주제나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그녀가 사학과 출신임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연구가 지리학 연구보다는 사학 연구에 가깝다고 평하며 “나는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어떤 연구 주제가 지리학 연구에 적합하고 어떤 연구 주제가 지리학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발언이다. 그의 발언은 개인이 아닌 학과 교수의 위치에서 발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태도와 발언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의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어떤 연구가 지리학 연구이고 어떤 연구 방법이 지리학 연구 방법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리학 연구자인지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때로 연구자이기보다는 활동가로 명명되곤 했

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나의 정체성이 연구자인지 활동가인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내게 연구자인지 활동가인지를 묻는 질문은 내가 상상하는 나의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 질문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활동가일 수는 없으며, 그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기준에서 나는 너무 자주 연구실을 비우고 너무 자주 현장에 몰입하는,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교수는 내게 공부는 ‘엉덩이 붙이고 하는 것’이라며 외부활동을 하기 보다는 연구실에 있기를 요구했고, 학과 내 어떤 이들은 내게 ‘공부 그만두고 활동할 거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던 나는 연구실 책상에서만 공부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외부 강의를 찾아 들어야 했고, 참여관찰을 위하여 각 지역의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현장을 경험해야 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나는 내게 필요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고, 자원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접근하기 어려웠을 내게 필요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모든 행동이 활동가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연구자의 정체성과 활동가의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노력은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쓸데없는 짓으로만 비쳤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리학적 연구 주제와 나의 연구 주제가 달랐고, 그들이 생각하는 연구 방법과 나의 연구 방법이 달랐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연구자의 태도와 나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 주제가 지리학적 연구에 적절한 주제인가? 어떤 연구 방법이 지리학적 연구 방법인가? 어떤 연구자의 태도가 지리학자다운 태도인가? 나에게 필요한 조언은 나의 연구 주제가, 나의 연구 방법이, 나의 연구자로서의 태도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필요한 조언은 어떻게 해야 나의 연구 주제가 지리학 연구와 중요한 접점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나의 연구 방법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나의 위치성을 드러내면서도 설득력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었다.

페미니즘과 지리학: 페미니즘의 안전한 소비와 지리학과 내 성차별적 문화

연구실에서 질리언 로즈의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를 읽으며 페미니즘 지리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나누었다. 세 명의 남성 동료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평가는 로즈의 글은 지식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기존의 지리학 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남성을 너무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지리학과 대학원 강의에서도 들은 적이 있다. 해당 수업에서 나는 페미니즘 정치지리학 비평을 다루는 글의 발제를 맡았다. 발제가 끝나고 교수의 첫 마디는 이러했다. ‘여기에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야. 이분법에 대한 거지.’

페미니즘이 이분법에 대한 것이라는 말은 그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테다. 페미니즘은 권력 구조를 질문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식과 그 인식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문제 삼는 정치학이자 인식론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비대칭적 이분법 구조를 비판하고,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를 자연질서로 만들고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회 구조를 문제 삼으며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과 연결되었을 때, ‘페미니즘은 이분법에 대한 것’이라는 말은 페미니즘의 주요 문제의식을 삭제시키고,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을 부정할 채 새로운 추상적 용어로서의 페미니즘만을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주류 지리학의 사유 방식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은 ‘쓸모’ 있지만 남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자 동료들의 총평 역시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던 교수의 표현과 매우 닮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페미니즘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페미니즘의 이론적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나는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구조와 그 구조에 복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지 않음으로써 페미니즘을 ‘안전하게’ 소비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페미니즘이 지식체계의 구성

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 인정하지만, 그렇게 얻은 인식론적 틀은 ‘나’와는 무관한 추상적 논의라고만 여기고 자신의 삶은 돌아볼 필요와 성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을 가장 안전하게 소비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정치학에 가장 반하는 태도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러한 기만적 태도는 지리학과 내에 성차별적 문화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유지· 존속시킨다. 지리학과 안에서의 성차별적 언행은 농담과 걱정과 염려로 지나가는 말로 유통되었다. 수업 시간에 페미니즘을 언급하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로서 성차별적 발언을 엄격하게 금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교수조차 여성 아이돌 이름을 언급하며 ‘○○같은 애들 좀 데러오면 바로 합격인데’라는 식의 말을 농담으로 하곤 했다. 교수 연구실에 여성 대학원생이 혼자 방문할 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 말하며 ‘요즘은 이런 거로도 걸린대’라는 말을 농담조로 덧붙이며 교수-학생 간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의 권고 사항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차별적 언어가 모두가 웃고 넘어가는 농담으로 발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어렵게 문제를 제기한다 한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만 융통성 없이 ‘눈치 없는 사람’이 될 뿐 잘못된 농담의 발화 행위와 그 발화를 가능케 하는 문화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않는다.

연구실을 나오기 직전 나는 지리학과에서 여성-페미니스트-퀴어 연구자로서 내가 보고 느낀 불편함과 부당함이 더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구실을 나가기 전 교수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때 돌아온 교수의 반응은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라는 말이었다. 내가 연구실을 나간 이후 같은 연구실 소속이었던 한 남성 동료는 내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하며 학과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나의 행동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자 선의를 꼬아서 생각하는 행동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이 겪는 억압과 폭력을 비판하는 페미니

스트 비판을 남성에 대한 혐오이자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페미니즘을 수업의 소재나 세미나 주제로 다룬다 할지라도 단순히 ‘새로운 이론’으로서만 페미니즘을 소환할 뿐 기존 체제나 문화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중요한 인식론이자 정치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리학과 내의 성차별적 문화는 더욱 교묘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침묵해 온 것들을 말한다는 것: 분열하는 목소리로 말하기

내가 연구실을 떠나고 얼마 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한국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 불리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김지은 씨, 최영미 시인 등 많은 여성이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그때 나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 연구실을 나가겠다고 말하던 그 날 내가 했던 말들도 ‘미투’였을까? 쏟아져 나오는 여성들의 폭로를 들으며 교수는 내 생각을 잠시라도 할까? 떠난 나를, 규제를 생각할까? 그에게 묻지는 못했지만 나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말한 것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불리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실을 나오고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날을 생각했다.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을 던져놓고 온 건 아닐까. 오랫동안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난도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권 칼은 거꾸로 쥐어 있었다. 난도질을 하는 내 손에서 피가 흐른다. 연구실을 떠나던 날 교수와의 면담 자리는 오랫동안 나에게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다.

나는 계속해서 분열했다.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나를 연구실 밖으로 밀어냈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그런 행동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내가 못나서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혹은 그들은 별 뜻이 없었겠지라

는 말로 나 스스로 자꾸만 그들을 변호했다. 스스로 그들을 변호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탓하기만 했다. 나는 동료 여성에 대한 방관자였고 나 자신에 대한 방관자였다. 결국 나를 떠나게 만든 건 내가 아니었나 싶어 괴로웠다. 나는 정말 내가 미쳐간다고 생각했다.

연구실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먹고 규혜와 연구실에서의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분열되게 만들었는가를 고민했다. 규혜와 나의 위치는 달랐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규혜는 내게 자신은 지리학과에서의 일들을 덮어두고 잊으려 했다고 말했다. 나는 자꾸 들춰내고 기억해내려 애썼다. 내가 기억하는 규혜는 연구실 안의 문제적인 관행들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말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던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다. 규혜는 그 벽에 부딪혔던 사람이고 나는 벽에 부딪혀 튕겨 나간, 그래서 지리학과를 떠나던 그녀를 보고만 있던 사람이었다. 규혜는 떠나는 등 뒤에 침을 맞은 사람이었고, 나는 떠나는 규혜의 등 뒤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마주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규혜의 등 뒤에 겨누어진 총칼을 목격한 사람이다. 목격하던 사람이었던 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나는 침묵을 학습당했다. 커켜이 쌓아두었던 목소리는 나를 뚫고 나와 터져버렸다. 침묵했던 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목소리가 가장 먼저 질책한 것은 나였다.

나를 뚫고 나간 목소리가 연구실 사람들에게도 가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침묵하던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미친 여성의 목소리라고 치부한다. 사람들은 미친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들어줄 이가 없이 울려 퍼진 목소리는 부서진 메아리로 다시 돌아온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기의 목소리를 의심하게 된다. 이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 목소리가 거짓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목소리는 망상의 목소리가 아닐까? 자기 목소리를 의심하는 여성은 분열한다.

이 글을 쓰는 작업은 메아리로 부서져 돌아오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부서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

작했다. 어떤 목소리는 그래도 잘 버텼다 위로하는 목소리이고 어떤 목소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고 타박하는 목소리이다. 어떤 목소리는 기억하라고 하고 어떤 목소리는 잊으라고 한다. 이 글은 부서져 돌아오는 메아리가 모두 나의 목소리임을 받아들이고 분열된 목소리로 말하려는 노력이다. 내 말은 나에게도 옳고 또 그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목소리를 의심한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의심의 과정이 성찰의 과정이었음을 배웠다. 성찰이 끝날 수 없기에 나의 의심도 끝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 나는 의심하고 분열하는 나를 더는 자책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옳고 그름 속에 갇혀 자책하며 내 목소리를 삼키지 않고, 분열된 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분열된 나의 이야기이다.

5. 규혜의 이야기

우리는 식구였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의 식구라고 했다. 그러나 연구실 식구에서 ‘식구’란 수사는 단순히 같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며 밥을 먹는 행위를 함께하는 집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연구실에서 남자 선배는 나의 ‘오빠’가 되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자 동기도 동기라기보다 ‘오빠’가 되었다. 실제로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오빠’인 게 맞다. 그러나 연구실에서 그들이 나의 식구 같은 ‘오빠’가 될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존재했을지라도, 나에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수는 ‘아빠’ 같은 존재로, 나이가 많은 남자 선배와 동기는 가족 내 ‘오빠’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했을까? ‘아빠’와 ‘오빠’에겐 이후 연구실에 들어올 여자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언니’가 필요했을 것이다. 식구란 부드러운 단어는 학과의 연구실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가부장적 질서를 감췄다. 연구실에서의 식사 시간은 연구실을 구성하고 있는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권력의 작동 방식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체화시키는 수단이었다. ‘식구’란 따뜻한 단어는 연구실의 권

력 작동 방식이 어떻게 미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식구, 오빠, 언니는 실제로 학과의 연구실에서 사용된 수사들이다.

식구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대가

우리는 식구였기에, ‘집’이어야 할 학교나 연구실이 아닌 바깥에서 공부해 왔던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석사과정 당시, 한 학기에 인문지리학 수업은 많아야 2개 정도 열렸다. 적어도 한 학기에 3개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기에 인문지리학 수업이 아닌 자연지리학 혹은 GIS 관련 수업을 들었어야 했다. 석사과정생의 수업은 지도교수와의 상담 혹은 학과에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학과 시스템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업을 들으려 같은 학교 일반대학원의 다른 학과 수업을 신청했고 타 대학교에서 교류수학을 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학과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었기에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인 부분도 나 스스로 챙겨야 했다. 수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와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력은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식구’들에게 받아들여졌다. 학생 개인이 스스로 부족한 수업을 지리학과 안팎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선택했을 때, 이는 튀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개인의 연구에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는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연구실은 출석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공간이었고, 연구실 부원들은 함께 공부하기보다 같은 시공간에 있으면서 함께 ‘밥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내가 속해 있던 연구실은 다른 연구실에 ‘셋방살이’를 하다 공간을 얻어 ‘독립’한 연구실이었다. 그리고 지도교수는 ‘막내’ 교수라는 이유로 다른 교수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면 자리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학계의 위계질서에서 지도교수의 ‘막내’라는 위치는 연구실의 가장자리에 있던 석사과정생인 나의 신체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통용되었다.

지리학과 연구실 안팎의 암묵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

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과 안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수업을 학과 밖에서 듣고 외부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며 공부했던 나는 식구에게 착실한 ‘여동생’이자 ‘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빠와 오빠는 내가 딸과 여동생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을 때 유지되는 관계였다. 게다가 지리학과가 아닌 타과 졸업생이었던 나는 그들의 식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했던 내부의 외부자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 질서를 흐리는 존재로 낙인찍혀 있었다. 나는 공동체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내 존재의 이기적임은 스스로 자초한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연구실 공동체 내 위치 속에서 나에게 향하는 모든 배타적 행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뒷말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행위들을 언어화하지 않았다. 내가 연구실을 비울 때면 다른 남자 원생이 내가 보는 자료들을 뒤적였다는 것을 듣고도 나는 그 행위를 바로 문제 삼지 못했다. 내가 보던 자료에는 내가 직접 써놓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나의 아이디어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정작 그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것이나 읽고 있는 책과 논문에 대해 내가 관심을 보이면 돌아왔던 그의 방어적 태도들은 내가 연구실을 비우면 공격적으로 돌변했다.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배타적인 행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나는 연구실에 ‘있지 않기’를 선택했다.

연구실의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아서 나에 대한 뒷말이 많았으리라 감감했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라 생각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방어적 공격의 태도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샤를로테 블록의 저서 『열정과 망상』의 9장 「감정의 미시정치와 젠더」에 따르면, 이러한 방어적 공격의 태도들은 학계 내 ‘속이기 게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블록의 분석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박사과정생 등 학계 내 소속원들은 자신들의 학계 내 사회적 입지를 구축해가기 위해 자신들의 감정을 속이는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 속이기 게임의 전략에 대한 대응에는 개방화 전략이 뒤따른다. 개방화 전략은 남성 연구자나 여성 연구자나 학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생존 전략으로 취하는 태도이다. 개방화 전략은 ‘속이기 게임’과는 정반대로, 쉽게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써 다른 연구자들과의 경쟁 관계가 아닌 연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젠더중립적이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속이기 게임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학계 문화를 구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개방성을 선택했을 경우, 그 선택을 한 연구자는 기존 경쟁 관계 속에서 ‘약함’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입지가 하락하게 된다(블록, 2019: 266). 블록의 분석에 따르면, 개방화 전략에 따른 사회적 입지의 하락을 기꺼이 감내하고 동료로서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동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들은 주로 학계의 감정문화에 대해 성찰적인 여성이 주도한다(블록, 2019: 270). 그러나 이러한 성찰적 여성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개방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회의와 문제점을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블록, 2019: 271). 이렇듯 감정의 미시정치에서 발견되는 전략들은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이러한 블록의 분석을 나의 맥락으로 가져온다면, 나를 향한 연구실 공동체원의 방어적 공격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개방화 전략을 시도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의 뒤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약점을 먼저 개방하여 우리의 관계를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협동의 관계로 나아가 연구자로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학문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는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책을 읽고 발제하는 형식의 세미나를 운영하고, 대학원생으로 지리학의 사상사적 배경을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조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자리를 연구실 선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했다. 나의 개방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내 여성 연구자와 남성 연구자의 경쟁 관계는 연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세미나는 지속되지 못했고,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며 공동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지 못했다.

나의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망상이 너무 심해져 고통스러울 때쯤 나의 자리를 몰래 뒤졌던 그에게 물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자료를 보는지 물었다.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최대한 살가운 뉘앙스에 웃음을 실어 물었다. 속은 분노와 화로 가득했지만,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물음을 들은 연구실의 또 다른 남성 동료는 연구실에 있는 책장이 공유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했다. 그리고 나의 책장을 나 몰래 뒤적였던 그는 나의 물음에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다. 같이 있던 여성 동료가 그의 행동을 보고 나에게 이야기해 줬음을 나는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왜 나는 나의 뒤에서 행해지는 나에게 대한 공격과 동시에 내 앞에서의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 여겼는지, 그때 그들의 대답을 듣고 깨달았다. 그들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개방화 전략은 연구실의 경쟁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나는 연구실 사회의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나의 생존 전략으로 삼고 싶지 않았다. 연구실 안에서 대화를 거절당해 온 경험들은 나를 연구실 밖으로 내몰았다.

감시와 훈육 체계 속의 동거

내가 속해 있던 지리학과 연구실은 지도교수가 같은 석사과정생과 수료생, 졸업생이 하나의 연구실을 공유했던 시스템이었다. 그 공간은 교수 연구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에게 배정된 자리가 각각 있고 그 자리들이 집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훈육과 감시가 용이했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훈육과 감시는 비단 지도교수와 지도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실 공간의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가고 만들어가는 학생들 간에서도 일어났다.

내가 속해 있던 연구실에서 나는 연구실이 생긴 이래로 들어온 세 번째 학생이었다. 신생 연구실이었던 터라 독립된 공간이 아닌 다른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실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당시에 공간을 공유해 준 연구실에는 나와 동갑이었던 여자 원생 한 명과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자 원생 한 명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던 연구실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자 원생 한 명,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동기였던 남자 원생 한 명,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 이렇게 그 연구실에는 총 다섯 명의 인원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간을 공유하며 지냈던 그 연구실에 들어가고 난 후 이루어진 첫 번째 논의는 교수님들께 드릴 선물에 관한 논의였다. 다섯 명 모두가 있는 메신저로 이뤄진 논의였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스승의 날과 명절 등의 선물 문화가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기에 스승의 날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메신저에서 처음 선물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은 어떤 선물을 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교수에게 줄 선물을 사줬으니 돈을 달라는 통보였다. 의아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선물을 하면 교수들이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연구실에 들어오자마자 잘 알지 못하는 교수에게 왜 선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 의문을 긴 시간을 들여 장문의 메시지로 남겼다. 장문의 메시지로 인해 나의 첫인상이 왜곡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이하다 생각이 드는 연구실 문화에 대해 논의해 볼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긴 시간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실에 새로 입실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의문이 생기는 일에 대해 함구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의문에 대한 연구실 선배들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논의가 이어진 단체 채팅방에서는 선물에 대한 논의는 나의 장문에 대한 답변 없이 이어져 갔고, 결국 선물은 교수에게 전달되었다. 단지 채팅방에서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나는 관계적으로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나의 기억으로는 이때가 시작이었다. 이후에도 연구실 선배들은 이에 대해 응답

해 주지 않았다.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한다거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준다거나 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직후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는 내게 환하게 건네졌던 인사들이 사라져 있었다. 그 이후로 인사는 오고 갔지만, 반대 의견을 낸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다. 불편한 인사들 사이에서 나의 망상은 시작되었던 것 같다.

하루는 연구실에 보드게임 루미큐브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다.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에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찾았다며 가까이 다가갈 구실을 만들었다. 이에 동감이었지만 선배였던 여자 원생은 내게 “연구실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라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정말 많은 일을 맡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옆에서 보기에 교수와의 미팅, 전화 받기, 이메일 보내기, 전화 걸기였다. 그녀에게 연구실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곳이었다. 나에게 연구실은 공부를 하며 쉬는 곳이었으며 다른 원생들과 일상적·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곳이었다. 공동의 연구실에서 원생들 각 개인의 수행의 차이들은 충돌되고 있었고, 그 충돌의 방향은 개인의 생존에 있었다.

그녀의 지도교수는 그녀에게 많은 일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원생들은 그 교수가 지시하는 일에 대해, 개인 공부를 하지 못한다며 절대 맡고 싶어 하지 않음을 원생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종종 내비치곤 했다. 그녀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더 이상 그 일을 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갔다. 연구실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자금이 필요했고, 교수들이 가져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자금이 연구실 내부에서 충당될 수 있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복합적인 것은, 일과 공부는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는 간단한 상황에서 비롯한다. 노동자와 학생의 신분을 이중적으로 유지해 가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위치에서는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비록 생활자금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연구를 선택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원생들은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의 연구실에서 각 원생이 다른 수행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은 지도교수와 원생들이 맺는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연구 중심이 아닌 일의 분배 중심으로 구축된다. 연구실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반면, 개인의 연구에 집중하면 할수록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멀어졌다. 일과 연구로부터 맺어지는 관계의 위계질서 속에서 원생들은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일과 연구라는 두 갈래 길에서의 생존은 결국 원생들 간의 훈육과 감시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말아야 하는 연구실의 용역이 있었고, 그것보다 개인의 연구를 우선하는 일은 공동체의 규칙을 무너트리는 일이었다.

동갑이지만 선배였던 그녀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의 행위를 관리하였다. 그 관리의 선배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형태로 존재했다. “연구실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던 그 날 저녁, 바깥에서 저녁을 먹고 잠깐 연구실에 책을 챙기러 갔다. 문을 열자 그곳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여자 선배는 내게 와서 한잔할 것을 권했다. 연구실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말했던 낮의 그녀와 같은 그녀였다. 나는 웃으며 거절을 한 뒤 재밌게 놀라는 말을 붙이고, 연구실에 들어갔던 목적인 책을 챙겨 나왔다. 과연 연구실은 원생들에게 어떠한 공간이었을까. 나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분석하기에는 지극히 일면적인 부분임에 틀림없다.

연구실 내에서는 동성 간 유대관계에 기반해 원생들 간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서로를 감시 및 훈육할 수 있었지만, 남성 연구자는 여성 연구자를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훈육하였다. 학생들 간 감시는 지도교수가 연구실을 운영할 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훈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연구실 공간에서 원생들의 옷차림에서부터 출퇴근의 여부,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 전달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정점에 위치한 피라미드식 감시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감시와 훈육으로서의 배제 방식과 다르게 남자 원생들이 보여준 감시 및 관리의 체계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했다. 연구실에 입실하고 난 뒤

연구실 선배와 나는 대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교수와 동료 원생에게 공공연하게 공유되어 있었다. 연구실 선배는 내게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으며 물어왔고, 그것이 연구실 선배와의 첫 대화였다. 마르크스를 좋아한다는 선배의 이야기에 나는 그 근래 읽었던 마르크스에 관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했다. 마르크스에 대한 짧은 논쟁이 오갔다.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그 순간이 기억나는 이유는 그 사적인 논쟁의 순간이 공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일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없던 교수와 나의 동기는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동기는 연구실 선배가 나를 좋게 봤다며 선배가 나에게 내린 평가를 전해주었다. 나의 일상적인 순간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든 감각은 고마움이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아닌 두려움이었다. 긍정적인 평가는 위계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 안에서 나의 행동을 긍정적인 평가의 방향으로 고정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 평가는 이후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제기를 일삼는 나’라는 평가로 변해갔다. 연구실에 단둘이 있던 그 순간은 순식간에 다른 연구실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기억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일상적 행동들은 나의 공적인 행동이 되어 그 시공간에 없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떠한 형태의 ‘평가’가 되어 퍼져나갔다. 나의 입장에서는 ‘퍼져나갔다’고 하기에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뒷말들은 제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생산 및 재생산한다.

사소한 언행들은 연구실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교수의 귀로 흘러들어 갔고, 사소한 것들은 교수의 귀 앞에서는 누군가의 캐릭터를 결정짓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의 외피를 입었다. 사소한 일이 교수의 귀에 들어갈 땐 사소한 일의 주인공이 고쳐야 할 단점이나 혹은 비난을 들어 마땅한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교수와 다른 연구실 원생들

이 다른 여성 연구자에 대해, 특히나 같은 연구실의 유일한 동료 여성 연구자였던 희성에게 ‘덜렁댄다’라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일반화하려는 것을 향해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했다. 나도 내가 속해 있던 연구실 사람들 중 분명한 한 사람이었다. 뒤에서 이뤄지는 남성 연구자들 간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는 여성 연구자에 대한 편견을 생산해 냈으며, 이러한 평가와 편견은 재생산되어 원생들 간의 감시와 훈육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여성의 신체 안에 가려진 연구자 정체성

연구실의 가부장적 질서를 은밀하게 가리는 ‘식구’라는 수사 안에 존재해야 했던 나는 일상적으로 특정한 지적들을 들어왔다. 옷차림과 단어 선택을 예로 들 수 있다. 2016년 당시 나는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다. 거주 공간과 연구실이 가까워지면서 나의 옷차림은 편한 복장이 되어갔다. 얼마나 많이 옷에 대한 지적이 나의 뒤에서 이루어졌는지 몇 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는 알 길이 없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희성과 나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그들의 지적을 전해들을 수 있게 되었다. 연구실에 잠깐 책을 가지러 들렀던 그 날의 파란 트레이닝복의 반바지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나의 반바지를 본 남자 원생은 희성에게 “너가 어떻게 좀 이야기해 봐”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저런 옷을 어떻게 연구실에 입고 왔냐며 나에게 그런 옷을 삼가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2016년 당시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장 지난주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시 학위논문을 준비했던 나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고, 도서관을 오가며 언덕을 오르내려야 했다. 편한 옷이 나에게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때다. 나의 편한 옷은 그들에게는 연구자의 옷이 아닌, 노출이 심한 ‘여성’의 옷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편하다는 이유를 혹은 그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맥락을 변명처럼 제시하는 것조차 나의 옷차림에 대한 그들의 뒷말에서 비

롯한다. 나는 나의 옷차림에 대해 이유를 달거나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당시 나는 나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2016년 당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꾸준히 옷에 대한 코멘트는 있어왔다. 더운 여름, 민소매 옷을 입었을 때는 ‘시원시원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연구실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휴, 시원시원하게 입었네”라는 말을 인사로 들었어야 했다. 지리학과 내에서 여성으로서 나의 몸은 연구자로서 나의 말과 생각을 앞서 존재해 있었다. ‘그런 옷’은 ‘어떻게 좀 해봐’야 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어떠한 옷이 연구실에 적합한 옷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옷 자체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옷에 대한 지적에서 옷은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연구자의 일상에서 무엇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발화하는 것은 젠더화된 규범을 통해 가부장적 권력이 작동하는 일상적 방식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은 같은 원생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동일한 옷차림 지적이 여성인 나에게만 가해진 것은 아니었다. 남성인 다른 동료들에게도 가해졌다. 교수는 연구실에 있는 남성 선배에게 그렇게 안 꾸미고 다녀서 나중에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겠냐며 그를 걱정하듯 말을 건넸다. 나의 옷차림은 연구자의 자질로 이어졌지만, 그에게 가해진 옷차림에 대한 지적은 연구자의 자질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남성 연구자의 옷차림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편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회자되었다. 나의 옷차림은 몸을 가려야만 하는 것이었고 연구자가 아닌 여성 개인으로 사적으로 규율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사생활이었지만, 남자 원생의 옷차림은 연구자로서 자질을 갖추며 개발 가능한 영역으로 회자되었다.

남성 동료들의 경우, 사적인 영역에 대한 코멘트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이야기가 직접 전달된다는 것은 뒤에서 전달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오갔을 정황에 대한 상상과 그 상상이 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애초에 차단됨을 의미한다. 나의 뒤에서 나에게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상상은 나를 더욱 연구실 밖으로 밀어냈다. 게다가 당시 노출과 관련된 옷차림에 대한 지적은 여성 연구자 개인에 대한 어떠한 다른 지적으로 이어졌을지 지금도 나를 두렵게 만든다.

그렇게 연구실 안에 있으면서도 외부자로 존재했던 내 20대 중후반의 4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최종논문을 지도교수에게 건넸다. 당시에는 얼른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유학을 다녀와도 변하지 않을 학과와 학계라는 것을 느끼고⁹⁾ 평생 이런 연구실에서 나를 위치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연구실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란 태도는 당시 연구실에서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었다. 어떠한 비판적 질문에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은 연구자로서 가져야 하는 비판적 태도와 문제제기를 폄하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 태도는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대화를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지’라며 종식시키는 연구실 분위기의 가장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었다.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고방식을 나는 논문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취하게 되었다.

논문 진행 과정에서 나는 진행되던 방식과는 다른 논점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던 방향과 다른 논점을 선택할

9) 석사를 졸업하고는 당연하게 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연구실에서 연구자로서 길러지는 제1의 방식이었다. 계속 한국에 머무르는 것은 자의의 선택이 아닌 능력의 모자람에서 발생하는 결과라는 인식이 내가 다녔던 학교의 지리학과 안에서는 팽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에 남아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상상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열등감을 재생산하게 만들었다. 연구의 내용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유학의 여부가 그 사람의 연구 능력에 대한 선입견으로 존재했다. 내가 소속되어 있던 연구실이 아닌 다른 연구실에서도 유학에 대한 욕망은 팽배했다.

유학은 연구자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욕망은 학과 차원에서 끊임없이 관리되고 장려되었다. 학위논문을 마치면 GRE와 TOEFL 시험을 준비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과 교수들을 찾아보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선배들의 특강이 열리기도 했으며, 이는 학과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유학에 대한 욕망은 교수와 학과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했다. 유학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교수추천서로 인해 원생들은 교수와 위계적 관계 맺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경우에도 한국 교수들과의 네트워크 속에 있어야 함을 원생들은 항상 주지하고 있었다.

시에는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한 일들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연구실에 안전하게 남고 싶었던 다른 원생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안전하게 떠나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지도교수에게 건넨 최종논문에 감사의 편지를 적었다. 최종논문이 나오기 전에, 최종발표가 끝나고 논문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던 그 날, 지도교수와 나는 서로 수고했다며 격려의 포옹을 했다. 그리고 나는 순간 연구실에서의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에 울컥해서 눈물을 쏟아냈다. 눈물을 쏟고 나니 정말 끝인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연구실에서의 뒷담화들과 망상들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보였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제본된 논문 맨 앞장에 남기는 감사의 말을 적었다.

나는 그 편지에 최종발표가 끝났던 날의 눈물과 포옹을 회상하며 ‘안아주셨다’는 표현을 적었다. 최종발표가 끝나고 후련한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 안아주었던 찰나적 순간을 표현한 나의 단어 선택이었다. 논문을 전달하고 이후에 지도교수는 내게 ‘안아주셨다’는 표현이 성(性)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라며, 적절하지 못했던 단어 선택이라고 했다.

어디에 부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당시 학과에는 ‘한 번도 전체 학과 차원에서 다뤄진 적 없는 정체 모를 사건’¹⁰⁾의 불안정한 분위

10) 해당 사건을 설명하는 모호한 표현은 전략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건이 발화된 맥락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적으로 다뤄진 적 없는 사건에 대해 연구자가 알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설명할 경우에 발생할 또 다른 가해의 우려가 생긴다.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전략적으로라도 사용한 것은 다른 남자 교수의 발화와 이를 내게 전달한 지도교수의 발화의 조건과 맥락이 당시 학과 내 만연한 분위기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탈맥락화되는 까닭에서다.

이 모호한 표현의 전략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학과의 구성원들이 사건을 대했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도 있다. 공동체 내 사건의 조사는 배타적으로 진행되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았고, 그 사건이 지리학과라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성찰하지 않았고, 일부 원생들 사이에서만 사건이 은폐되는 방식으로 공유되었다.

기로 인해, 남자 교수와 여자 학생이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음에 대한 매카시즘적 경계 태세가 극도로 치닫고 있었을 때였다. 지도교수에 따르면, 논문의 편지를 본 다른 남자 교수가 ‘안아주셨다’라는 표현을 읽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며 농을 건넸다고 했다. 그 교수는 학과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매카시즘적 분위기에 대해 농담함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을 조롱했다. 그의 농담에는 ‘안아주다’의 뜻을 ‘sex’와 ‘hug’ 중 어떤 뜻으로 맥락화하였는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도교수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왜곡하여 해석한 그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나에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누구에게든 어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표현을 적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는 지도교수가 그 교수에게 ‘sex’로 읽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왜 반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교수가 내 학위논문을 읽어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다. 농을 한 교수에게 나는 지도교수의 제자이거나, 이제 막 학위논문을 마친 신진 연구자가 아니라 그저 이십 대 나이 어린 여자였을 뿐이었던 것은 아니었냐고 묻지 않았다. 왜 묻지 않고 나왔는지 여전히 후회되고, 그 후회로 인해 여전히 나는 그 곳에 남아 있다.

여성 연구자였던 나는 연구의 내용이 아닌 편지에 사용한 단어 선택으로 나의 행동을 평가받고, 성적 언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배타성을 경험했다. 성적 언사에 대한 일방적 해석은 젠더 규범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성은 성적으로 해석되는 언사를 제공하는 주체로 상상되기 때문에, 그런 언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해석은 경합의 대상이다. 성적 언사라 해석할 수 있는 주체가 곧 성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사건은 식사 장소, 답사지, 연구실 등의 공간들에서 비공식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회자되었다. 당시 어느 교수는 사건이 조사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학부생들 앞에서 여학생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끊임없이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언사들을 들어야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학생이 특정되고 소문이 무성해지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부재했던 사건이었다.

적 언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여성 연구자는 이러한 성적 언행과 언사의 관리를 통해 남성을 중심으로 한 동성문화가 강하게 작동하는 지리학계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된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옷차림과 단어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는 내 신체에 가해지는 농담을 들어야했다. 나의 키는 171cm이다. 나의 신체는 교수에 의해 ‘기골이 장대함’으로 회자되곤 했다. 언제나 농담조에 실려진 그 단어는 정확히 171cm의 키를 지닌 나의 신체를 지칭하고 있었다.

나의 키는 교수를 포함한 다른 남성 연구실원들의 키와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교수가 ‘기골이 장대함’이라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나의 당황스러움은 늘 나의 웃음으로 넘겨지곤 했다. 분명 동일한 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체는 ‘기골이 장대함’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나의 신체는 끊임없이 식당 테이블이든 회의 테이블이든 동료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 위에서 ‘기골이 장대함’으로 표현되었다. 남성과 여성 불문하고 비슷한 키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나의 신체는 ‘기골이 장대함’이라는 구체적 언어로 표현되었고, 나 스스로 나의 신체를 ‘기골이 장대함’과 결부시켜 상상하게 되었다. 나의 ‘안아주셨다’는 표현은 성적 언사로 사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지만, 나에게 대한 교수와 남성 연구자들이 사용한 ‘기골이 장대함’이란 표현은 일상적 농담으로 공공연하게 표현되어도 관리되지 않았다.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표현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마주친 남성들에게 솔하게 들어왔던 표현이라 표현 자체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도 결코 아니었다. 연구실원들이 다 함께 있는 회의 시간의 테이블 위에서, 답사를 가서 지내는 시간에서, 다 함께 하는 회식 자리에서,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화되는 ‘기골이 장대하다’는 표현은 나로 하여금 공동체원으로서 상당한 이질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의 이질감은 내 신체에서 비롯하는 소속의 이질감과 더불어 연구실이라는 사회 안에 위치한 나의 ‘유별남’으로 느껴지는 정체성의 이질감이었다. ‘기골이 장대하다’는 표현은 동화되지 못하고 튀는 존재로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 신체로 구체화되는 표현이었다.

사소함의 정치

사소한 것은 실제로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다고 해석되어진 것들이다. ‘사소함’을 둘러싼 평가와 해석은 권력의 작동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사소함’의 외피를 쓰고 은밀하게 작동하는 것들이다.

사소한 일상이라 치부되는 영역에서 평가의 방향은 남자 동료들에게는 위로와 응원이 된 반면, 나를 포함한 바람직한 ‘언니’와 ‘여동생’이 되지 못한 여자 동료들에게는 걱정을 표방한 비방이 되기도 했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잘못 하는 남자 동료에게는 응원과 더불어 관심을 기울여주지만, 말을 ‘꼬치꼬치’ 잘하는 여자 동료에게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나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는 걱정을 표방한 경고장이 날아온다. 나는 연구실에 입실했던 순간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질문이 많은 사람, 토를 잘 다는 사람, 소위 ‘태클’을 많이 거는 사람이 되었다.

샤를로테 블로크가 『열정과 망상』에 쓴 덴마크의 학계를 연구한 내용에 서처럼, 연구자들 간의 질투, 열등감, 시기, 수치심 등은 학계 내 일상적인 감정문화이며, 이러한 감정문화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학계 내 구조를 생산하기도 한다. 남자 원생들의 동성 연대는 여성 연구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동료로서 인정되어 연구자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질투와 시기의 감정문화 속에서 배척당하고 단절시키게 만드는 장치다. 배척의 형태는 남성과 여성 원생들 사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규범은 특정 학교의 특정 연구실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하녀같이 너가 왜 고기를 구워?”

상황은 이러하다. 다른 학교의 지리학 강의를 교류수학했던 적이 있다. 수업이 끝난 후, 으레 그러하듯 뒤풀이 자리가 이어졌다. 교수를 포함해 다섯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으로 향했다. 자리는 교수를 중심으로 화기에 애했고, 나는 고기를 구웠다. 나는 별생각 없이 내 앞에 있던 고

기를 구웠다. 열심히 굽고 자르고 하는 중에 교수로부터 나는 그 한마디를 들었다.

“하녀같이 너가 왜 고기를 구워?”

부적절했다. 분명하게 그 상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표현이었다. 고기를 자르는 학생에게 ‘하녀같다’라는, 젠더화된 노동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그 사고 구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들은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교수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반문했고, 그는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권력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는 교수가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순간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에 가담하고 방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방관자가 된 나에게 그 순간이 사소한 순간이었다 치부하게 만드는 감정의 구조를 생산하게 만든다.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 이 이야기를 지리학과 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지리학과 안에 팽배한 여성 연구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던 남자 교수에 대한 가십용 비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리학계 내 젠더적으로 불평등한 인식의 피해자이고 싶지 않았다. 어디서든 부모님의 떳떳한 딸이고 싶었고, 친구들이 상상하는 대학원 사회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환경에 있다고 믿고 싶었다. 이제야 생각해 보건대, ‘피해자 됨’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지리학과가 여성 연구자를 연구자가 아닌 여성으로만 인식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여성 연구자들 스스로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후에야 희성에게 말할 수 있었다. 혹은 희성과의 대화 속에서 인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사소하다 여겼던 순간들은 실제로 사소했던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일상의 영역에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음을 반영한 해석이 나타난 순간들이었다. 동시에 사소한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귀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사소하다 평가하는 것에 적

극적으로 가담했던 순간들이었다.

연구자가 겪는 일상에서의 감정들은 연구자의 위치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는 미시영역이라 분류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흔히 미시적이라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구성되 지 않는다. 감정은 교수, 직원, 학생들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지리학계가 지속되도록 권력이 훈육하는 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로부터 구성되는 사회문화적인 것이다.

학계는 순수한 학문적 열망으로만 가득 찬 공간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여타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즉, 학 계는 “구성원의 이익, 경쟁, 자기와 닮은 이들의 포섭과 닮지 않은 이들의 배 제를 통해 재생산되는 ‘조직’”(블록, 2019: 317)이다. 나의 경험들을 다시 돌 이켜 보며 성찰해 볼 때, 나는 학계를 어떠한 생존 경쟁도 어울리지 않는 공 간으로 상상했었다. 나의 연구를 성실하게 해내고, 동료들과 함께 학술 공동 체를 형성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는 곳 이 학계라 생각했다. 나의 경험들은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 학계 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험들은 학계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 속에 서 여성 연구자들이 어떻게 젠더 규범으로 배타적이고 선택적으로 관리되고 훈육되는지를 보여준다. 여성 연구자들이 겪는 젠더 규범은 대체로 일상적 이며, 행위자들의 연결망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게 작동한다. 이로 인해 여성 연구자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분열적 감정을 겪게 되고 이러한 분열적 상호 작용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과 경멸,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과 환멸 등으로 이 어진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소한 것이라 명명될 수 없으며, 여성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거대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유리천장과 유리벽

지리학과를 떠났지만 여전히 난 그 연구실 안에 갇혀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들이 했던 나에게 대한 뒷담화들은 나

를 여전히 분열하게 하고, 경악하게 만든다. 불안함에 심장을 뛰게 만들고,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갔던 나의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 후회로 수치스럽게 만든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그 시간의 벽에 나를 계속 부딪치게 만든다. 스스로 작고 사소했던 순간들이라고 치부했던 술한 말들과 눈빛들 그리고 나의 뒤에서는 소란스럽지만 내 앞에서는 침묵이 되는 순간들에 대해 묻지 않고 그것들을 묻으며 지나왔다. 그렇게 지나온 줄 알았지만, 당시의 경험들을 다시 복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때 그 공간에서 여전히 제 자리걸음을 하고 있었음을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위계질서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나 권력형 노동 및 성적 착취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어야만 권력 구조의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 연구자들에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임금과 고용의 기회와 같은 노동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 혹은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들만이 여성 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증거로서 언어화될 수 있다 생각했다. 이러한 여성 연구자의 위치가 나오는 먼 이야기이길 바랐다.

나와 멀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은 내게 이미 일상적으로 체화된 현실이었다.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끔 언제/어디서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물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거나 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내가 처했던 환경의 맥락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더 늦기 전에,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고 서로의 기억들을 꺼내어 마주한다. 나의 기억은 다른 누군가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 연구자 한 개인의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 지니는 지역성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성은 그동안 무엇이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문하게 하며 성찰하게 하는 전략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공간이 교차하여 여전히 내게 존재하고 있는 지리학과에서의 경험들은 물질적으로 잡히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시의 공간과 시간이 교차된 순간들이 기억에서 흐릿해진다. 그리고 그 흐릿해지

는 것만큼 내가 경험했던 배타적인 태도들과 그 태도에서 느꼈던 분노, 억울함, 수치심 등도 그저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지나지 않게 된다. 과거는 지나가더라도 그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서 나를 감정 '괴물'로 만들어버린다. 감정은 신체의 물질적 분비물들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나로부터 쉽게 떼어낼 수 없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부피가 줄어들거나 팽창해서 사라지거나 혹은 영속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물질과는 전혀 다른 공식에 놓인다. 사라진 줄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작스레 나타나기도 한다. 기억과 경험도 마찬가지다.

내가 겪었던 순간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석의 끝에서 나는 더 이상 연구실, 답사지, 학회장 등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사소하다고 생각하기를 멈추고자 한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젠더 규범을 작동시켜 개인들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은 개인의 순발력이나 기지로 해결해 갈 수 없기에 이러한 일들은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사소하다 생각했던 사건들 속에서 연구자가 되고자 했던 나는 곧 잊혀지고, 사소함의 역학에서 생성된 피해자의 감정만이 남는다. 피해의 감정 속에서 나는 나를 성찰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한 번도 동료 여성 연구자에게 지리학과의 남성 연구자들로부터 받았던 피해를 똑같이 가한 적 없는 순수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사소함의 정치에 기댄 채, 나 또한 연구실 공간 안에서 계속 방관자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여성이 연구자로 지리학과에서 존재하며 계보를 생성시켜가는 작업에서 오히려 유리천장이라는 억압은 저항의 대상으로서 더 명확해 보이기까지 하다. 수직적으로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면, 식구라는 이름에 또는 동료라는 이름에 가려진 수평적 유리벽들은 유리천장과 달리 은밀하며 질기다. 사방에 존재하는 유리관 안에 갇혀 나는 여성 연구자로서 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여성 연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유리에 비친 나의 모습만을 보며 슬피했고 분노했다.

내가 지리학과 연구실에서 겪은 경험은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 불행의 토

로가 아닌 개인 경험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언어화의 노력이다. 동시에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사회적·문화적 연결망을 포착하여 공적으로 드러내는 정치화 작업이다. 연결망에 존재하는 유리벽과 유리천장을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 작업으로서의 언어화이며, 개인 경험이 다른 개인의 경험과 교차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연결망의 지평을 여는 작업으로서의 정치화이다. 그리고 기억이 만들어가려는 고고학이다. 나의 고고학은 희생과 독자들을 만나 계보학을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당시에 나는 피해자 됨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와 연결망이 없었다. 나의 상황은 고립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이번 논문을 쓰기 위해 그 고립되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고 분석적 언어로 다듬는 과정 속에서 성찰하고자 노력했다. 이제는 스스로 그 일을 문장으로 엮어 내려간다. 내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일상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 고통스러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연구실을 떠난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지리학과를 떠나오기까지 두 저자가 겪은 경험을 데이터로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지리학계 내 젠더화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였다. 지리학과 안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부대낌’이나 ‘어떤 불편함’으로만 설명될 뿐 뚜렷하게 이것이 폭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침묵을 통해서, 때로는 농담이라는 웃음의 가면을 쓰고서, 때로는 배려라는 포장으로 폭력을 폭력이라 정의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이라 정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 정의 내릴 수 없음으로 인해 논의의 가능성을 애초에 단절시키는 것이 미시적인 젠더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본 논문은 두 저자의 경험만을 데이터로 분석했다. 분석의 과정에서 우리

는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경험이 모든 여성 연구자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경험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과 거짓,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경험이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정치적 작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Scot, 1992).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관점은 경험의 상대성을 무기로 우리의 논점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경험의 해석 가능성은 해석의 다양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시공간에서의 경험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맺고 있는 연결망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험의 해석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망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우리의 경험은 지리학과 안에서 행위자들이 어떤 연결망을 조직해가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미시적 차원의 젠더화된 권력은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구성되고 작동한다.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망 속에서 젠더화된 권력이 구성되고 작동한다는 관점은 구조와 개인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망을 강조한다는 것은 구조와 개인을 대립하는 이항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개인의 '관계 맺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조규혜, 2017: 13). 본 논문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지리학과 내의 미시적 젠더 권력의 작동은 특정 학과 혹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 개별화되어서도, 학계라는 곳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식으로 추상화되어서도 안 된다. 두 입장 모두 개인 혹은 구조라는 이항 논리 속에 숨어 둘 중 하나의 행위성만을 주장하며 관계의 연결망 속에 위치한 각자의 성찰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관계망 속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폭력의 피해자로만 기술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경험했는지를 말하는 동시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주저했는지, 어떻게 침묵으로 방조하거나 공모했는지를 분석했다. 스스로가 권력이 작동하는 폭력적 방식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지리학과를 떠난 지

금에서야 지리학계를 구성하는 연결망 속에 위치한 행위자로서 우리를 성찰하였다.

본 논문을 쓰기 전까지 우리 두 저자는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피해의식에서 발생했던 그저 사소한 것은 아닌가, 사건이라 분석되기에는 애매한 순간들이 아닌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금으로 가져와도 되는 것일까?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여성주의적 공간론: 비판지리의 역동과 확장” 특별호 관련 공고가 났던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도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비단 지난 6개월간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연구실에 들어갔던 그 순간부터 느꼈던 불분명한 불편함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왔던 이야기였다.

이는 1년 전 《공간과 사회》의 “여성주의적 공간론: 비판지리의 역동과 확장” 특별호에 투고했던 논문의 결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당시 우리는 ‘사소하고 애매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이에 정답을 구하고자 본 논문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다. 여성 연구자로서 우리가 지리학과에서 겪은 불편함이 ‘예민함’과 ‘피해의식’으로 치부되어 왔다는 것이 학계 내 젠더규범이 권력으로 작동해 온 방식이었음을 말하며 논문을 마치는 지금 여기, ‘사소함’에 대한 의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 년 전 원고의 글을 다시 쓰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 우리의 경험들을 현재로 가져왔다. 지나간 경험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경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때로는 과거의 나를 원망하기도 했고, 현재의 나를 의심하기도 했으며, 과거를 들추어낸 대가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때로는 과거의 나를 위로했고, 현재의 나를 다독였고, 미래의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아니라 끊임없는 진동 속에서 분열해 가며 우리

의 고민과 질문은 구성되어 왔다.

우리의 경험과 해석은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연결하는 경첩(hinge)이 되어야 한다(Adams and Holman Jones, 2011). 여전히 ‘사소함’과 ‘애매함’에 묻혀, ‘예민함’이라는 낙인에 갇혀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 연구자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 연구자들이 눈물과 분노로 그리고 망설임으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있다. 연구실과 답사 현장, 컨퍼런스 홀과 회의실 등 학계의 다양한 공간에서 여성 연구자들 개개인이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펼칠 수 있는 문을 함께 열어갈 지렛대로서 우리의 논의가 경첩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문화기술지라는 방법을 전면내세운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하나의 완성된 서사 속에서 풀어가지 않았다. 이는 자문화기술지가 목적하는 성찰적 글쓰기의 일환으로 채택한 방법이었다. 성찰적 글쓰기의 목적은 우리가 사용한 ‘나/우리’의 주어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Adams and Holman Jones, 2011). 주어의 변화는 다양한 경험의 맥락을 가시화할 것이며, 경험의 새로운 해석의 시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경험이 단일하고 특수한 사례로 치부되지 않을 수 있는 인식론적 상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pilogue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 간단한 세 구절로 우리의 논문은 정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를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치밀한 용기를 내야 했다. 그 치밀한 용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동고동락했던 동료와 교수를 닦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우리 각자의 잘못은 아닐까 하는 혼란함 속에서 허우적대기도 했다. 이러한 분열적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은 회자되고 분석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논문의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지

리학자가 되어 세상을 탐구하겠다는 설레는 마음을, 나의 무능으로 인해 포기한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복합적 감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글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

그 진동들 사이에는 우리 두 저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 두 저자는 협력 자문화기술지란 방법론을 통해, 연구실 안에서 함께 존재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 않고 넘어갔던 일들을 하나하나 물어야만 했다. 연구실 밖을 나온 이제야 그 당시의 서로가 궁금해졌다.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두 저자는 차이를 감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연대라는 것이 단순히 차이를 지워나가며 하나로 합일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연구실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규혜와 함께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했고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연구실을 떠났던 우리가 같은 경험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연구실에 없던 시절 규혜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 배신감과 무력감을 알지 못했다. 함께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규혜와 나의 차이를 마주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지는 않는다. 나의 경험과 감정에 규혜가 있다. 규혜의 경험과 감정도 내가 있을 것이다. 논문을 마치는 지금 일전에 한 교수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교수는 공부하는 여자 선배가 별로 없지 않느냐며 내가 공부를 계속 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격려하는 교수에게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부를 그만 둔다고 생각하는지를 되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아무래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문제가 아니겠느냐였다. 그 말에 어딘가 콧 막히듯 아팠다. 내게는 임신, 출산, 육아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었다. 그게 무어라 설명할 언어가 없어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왜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지리학과를 떠나는가'가 이 논문을 시작할 때의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왜 나는 지리학과를 떠났는가'라는 질문이 되었다. 지리학과를 떠난 모든 여성을 대표하여 하나로 귀결되는 답을 찾는 대신 분열하며 확장하는 나의 질문을 계속 해나가려고 한다.

처음 내게 논문을 제안해 온 것은 희성이었다. 희성은 연구실의 경험을 논문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하자고 했다. 희성보다 먼저 연구실에 들어가 있던 나는 늘 홀로 느꼈던 외로움이 있었다. 학부가 달랐다는 이유로, 홀로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타자로서 스스로를 자각했던 나는 그 외로움이 온전히 나만의 것인 줄만 알았다. 연구실에 함께 있었을 때든 같이 세미나를 하든 함께 학회를 참석하든, 하물며 회식 자리를 가든 우리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었다. 협력 다문화기술지관 방법론으로 본 논문을 집필하면서 그 외로움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희성도 느끼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경험이 다를지라도,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를지라도, 그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그리고 소외감을 같이 느끼고 있었다. 차이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연대한다는 것은 차이를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 속 다른 행위자가 주어진 문장을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것이었다.

논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그때의 그 공간의 고통스런 경험이 치유되길 바랐다. 우리가 상상했던 치유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글을 써내려가게 만들었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권력의 작동 방식 속에서 우리가 혹은 그들 중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만을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그 고통스런 경험을 과거에만 남겨 두지 않고 현재로 가져와 마주하기로 했다. 부디 이 논문을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 사이에서만 자신을 위치시켜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기를, 그리고 이 '사소한' 일들로부터 무관한 일이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친다.

원고접수일: 2020년 05월 01일

심사완료일: 2020년 05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06월 10일
최종원고접수일: 2020년 06월 13일

Abstract

A Letter for Academia of Geography:
Stories of Two Women Graduate Students
Who Left the Department of Geography

Jung, Heesung, Cho, Kyuhye

This study reveals gendered disciplinary power in Korean geography which is hetero-normative and male-dominated by analyzing two women researchers' experiences using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methodology. We analyze our experiences and feelings that we faced in academic spaces, such as lecture rooms, labs, conferences, and wrap-up parties to explore gendered disciplinary power that works in micro level. Through our experiences inside and outside of the lab, the basic unit of academic community, this study investigates which knowledge w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and meaningful under gendered surveillance over daily academic activities and how women researchers are disciplined through processes of knowledge construction. In addition, this study questions about the objectivity of knowledge and scientific strictness by utilizing researchers' experiences as data.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critical discussions about gendered power in the academia of geography. Then we discuss our main methodology named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in detail. The experiences of two authors are analyzed in a parallel structure in order to avoid describing several stories as one by erasing the differences. We put epilogue which is unusual part in a research paper at the end of this paper. Epilogue makes our paper not just parallel, but also leads for reader to reflect on themselves and seek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as an extension of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methodology.

Keywords: women researchers, gendered micro politics, culture of emotion, disciplinary power,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network, laboratory, glass wall

참고문헌

- 강태경. 2018. 「대학의 변화와 하나의 직종으로서 대학원생」. 《진보평론》, 제76호, 202-214.
- 김민섭. 2018. 「대학원생도 노동자다」. 《인물과사상》, 제241호, 139-153.
- 김우석. 2015. 「여성 체육학자로서의 순응과 저항: 여성 대학원생의 적응 과정에 대한 문화기 술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5호, 145-157.
- 김은하·임연옥·박경숙·김남영. 2008.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성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113-125.
- 김현철. 2015.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2014 신촌/대구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19. 「여성주의적 공간론: 언어, 존재, 공론장의 부재와 갈망 사이에서」. 《한국공간 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루인·정희성. 2018. 「퀴어와 공간의 관계 재구성: 영화 <불온한 당신>(이영, 2015)의 바지찌 이목을 통해 한국이라는 공간의 이성에 규범성과 도시-촌락 이분법 탐문하기」. 《공간과 사회》, 제28권 1호, 194-226.
- 루인. 2013.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폭력: 트랜스(젠더)페미니즘을 모색하기 위한 메모, 네 번째」. 《여성학논집》, 제30권 제1호, 199-233.
- 민무숙. 2002. 「여자박사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대응」. 《한국여성학》, 제18권 제1호, 173-201.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제13권 제2호, 55-79.
- 박현선 외. 2018.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학문공동체의 역할 토론회」. 《문화과학》, 제95호, 141-213.
- 부산대 미투운동의 당사자와 연대자들. 2018.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 대학원생의 미투」. 《문화과학》, 제95호, 117-139.
- 하딩 샌드라. 2007.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옮김. 파주: 나남.
- 블록크, 샤를로테. 2019. 『열정과 망상: 학계의 감정문화』. 김미덕 옮김. 서울: 갈무리.
- 서정원. 2015. 「엄마대학원생의 학업」. 《여성연구》, 제89호, 83-118.
- 신동일. 2018.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담론연구의 출현」. 《질적 탐구》, 제4권 제3호, 1-42.
- 일루즈, 에바. 2010. 『감정 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김정아 옮김. 파주: 들베개.
- 염동규. 2017. 「마지막 몸부림, 대학원생 문제의 서사화가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의 사례」. 《대학: 담론과 쟁점》, 제3호, 145-155.

- 유현미. 2018.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 '교수 갑질'·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사회》, 제120호, 90-131.
- 이현재. 2010.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한국공간환경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00-114.
- 임지연·고준우·신현욱·안태언·이동현·김아람. 2019. 「미투 이후, 새로운 대학문화 형성은 가능한가」. 《대학: 담론과 쟁점》, 제1호, 77-119.
- 장미혜. 2001. 「미취업 여자 박사의 경험과 좌절」. 《한국여성학》, 제17권 제2호, 157-177.
- 전지은. 2012. 『남녀공학 이학계열 여성 대학원생의 젠더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제5권 제1호, 105-144.
- 조규혜. 2017. 「의례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로즈, 질리언.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정현주 옮김. 파주: 한길사.
- 콜린스, 패트리샤 힐. 『흑인 페미니즘 사상: 지식, 의식, 그리고 힘기르기의 정치』. 박미선·주혜연 옮김. 서울: 여성이론연구소.

- Adams, T. E. and S. Holman Jones. 2011. "Telling Stories: Reflexivity, Queer Theory, and Autoethnography."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1(2), pp.108-116.
- Adams, T. E., S. Holman Jones, and C. Ellis. 2015. *Autoethnography.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kinleye, S. R. 2006. "Against the Odds: Does Geography Make a Difference?" *Gender, Place & Culture*, 13(1), pp.27-31.
- Chang, H., Ngunjiri, F. and K. C. Hernandez. 2013.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Abingdon-on-Thames, Oxfordshire: Taylor & Francis Group.
- Crawley, S. 2012. "Autoethnography as feminist self-interview". In J. F. GubriumJ. A. Holstein and A. B. Marvasti(eds.) *The SAGE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The complexity of the craft*, pp.143-160
- Datta, A. 2019. "But This Is Not Geography...! Of Ontological Circumcisions and Writing Feminist Geographies from India." *Gender, Place & Culture*, 26(7-9), pp.1103-1110.
- Gluckman, N. 2018. "How Henrietta Schmerler Was Lost, Then Found."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 Jackson, P. 2003. "Introduction: The Social in Question." in K. Anderson, M. Domosh, S. Pile and N. Thrift(eds.).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pp.37-42.
- King, K. E. 1994. "Method and methodology in feminist research: What is the difference?"

-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 pp.19-22.
- Kobayashi, A. 2006. "Why Women of Colour in Geography?". *Gender, Place & Culture*, 13(1), pp.33-38.
- Liu, L. Y. 2006. "On Being 'Hen's Teeth': Interdisciplinary Practices for Women of Color in Geography." *Gender, Place & Culture*, 13(1), pp.39-48.
- Mahtani, M. 2006. "Challenging the Ivory Tower: Proposing Anti-Racist Geographies within the Academy." *Gender, Place & Culture*, 13(1), pp.21-25.
- McDowell, L. 1990. "Sex and Power in Academia." *Area*, 22(4), pp.323-332.
- Monk, J. and S. Hanson. 1982. "On Not Excluding Half of the Human in Human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4(1), pp.11-23.
-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Cambridge: Polity Press.
- Sanders, R. 2006. "Social Justice and Women of Color in Geography: Philosophical Musings, Trying Again." *Gender, Place & Culture*, 13(1), pp.49-55.
- Scot, J. 1992. "Experience." in J. W. Scot and J. Butler(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Abingdon-on-Thames, Oxfordshire: Routledge.
- Sioh, M. 2006. "Against the Limits of Our History." *Gender, Place & Culture*, 13(1), pp.57-65.
- Steffen, M. 2017. "Doing Fieldwork after Henrietta Schmerler: On Sexual Violence and Blame in Anthropology." *American Ethnologist website*, November 13.